

# 2010년도 인권에세이 공모사업 개요

## 1 목 적

초·중·고등학생들의 생활속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인권 친화적 학생 문화 조성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에세이 공모 사업'을 추진

## 2 추진경과

-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제2010-17호) : 2010. 4. 19.(월)
- 공모 및 접수기간
  - 공모기간 2010. 4. 19.(월) ~ 2010. 9. 10.(금)
  - 접수기간 : 2010. 8. 30.(월) ~ 2010. 9. 10.(금)
- 응모건수 : 총196편  
(초등부 - 20편, 중등부 - 89편, 고등부 - 87편)

## 3 심 사

- 심사기준 : 인권지향성, 참신성, 논리성, 작품성에 의한 평가
- 시상내역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및 상금

구 분	인권 에세이 (38편)
최우수	5편(문화상품권10만원, 초1, 중2, 고2)
우수	13편(문화상품권5만원, 초3, 중5, 고5)
장려	20편(문화상품권3만원, 초5, 중8, 고7)

## 2010년도 인권에세이 수상작

부문	이름	학교	제목	수상 내역
초 등 부	박창균	수원 효원초등학교	장애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	최우수
	이가흔	세교초등학교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우수
	전대산	목포 북교초등학교	되찾은 민수의 인권	
	김민태	대전 판암초등학교	인권침해에 대하여	
	안재현	소화초등학교	신도버린 사람들	장려
	김지우	제주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폭력은 싫어요!	
	박미진	수원 효원초등학교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유지원	서울 연희초등학교	국경 없는 마을, 원곡동으로의 여행	
	김석희	만선초등학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부문	이름	학교	제목	수상 내역
중 등 부	김하은	대구 천내중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인권이야기	최우수
	임경빈	대전 만년중학교	우리가 꿈꾸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선지은	진산중학교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우수
	신동훈	영도중학교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박은빈	부산 안락중학교	‘모든사람은인권을가지고있다’ 이명제를기호화시킬수있을까?	
	황소흙	영훈국제중학교	우리 우정 언제까지 계속될까.	
	김연주	경일중학교	인권이 숨 쉬는 학교	
	황연경	하안북중학교	진정한 여성의 역할	장려
	전규혁	대구 천내중학교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양성평등 운동’	
	심주연	대구 천내중학교	나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가은	대구 천내중학교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나요?	
	이재현	웅상중학교	학생 인권	
	선한나	광주 동아여자중학교	다문화 가정에 따뜻한 관심을	
	김효경	매홀중학교	내가 만나 뵈 장애 어르신 의 인권에 대한 생각	
	이상현	부원중학교	인권문제, 사회를 탓하다	

부문	이름	학교	제목	수상 내역
고 등 부	신해성	서울국제고등학교	관람도 봉사가 되는 대한민국	최우수
	김한결	김해여자고등학교	두 개의 인권	
	장주성	서울 방송고등학교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	우수
	최서아	효자고등학교	가슴아픈 자기소개서	
	서지현	상지여자고등학교	지켜야 하는 것, 지키고자 하는 것	
	김성원	용인외국어고등학교	목숨을 걸고 얻어낸 은영이의 자유,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범성희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	다르지 않다	
	정지연	영파여자고등학교	엄마, 나 엄마가 되었어요!	
	정동화	경남 창원고등학교	청소년 인권, 그 무한한 가능성	장려
	안현담	수원화흥고등학교	인간은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권예은	인천 문일여자고등학교	사람의 특권, 인권	
	최지영	광주여자고등학교	“인권은 늙지 않는다 “	
	김한솔	충남여자고등학교	인간은 인간답게 처다봐주세요	
	최현호	경북고등학교	잔인한 배려	

## 인권예세이 심사 총평

### [인권예세이] - 심사위원 강명숙(배재대학교 교수)

2010년 인권 예세이 공모전에는 초등20편, 중등89편, 고등87편 총 196편이 응모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초등부 9편, 중등부 15편 고등부 14편을 당선작으로 선정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는 경향을 반영한 듯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았지만 아쉽게도 제한된 편수만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등부에서는 박창균의 “장애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이가흔 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 전대산의 “되찾은 민수의 인권”, 김민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를 우수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 버린 사람들”, “폭력은 싫어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국경없는 마을:원곡동으로의 여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장려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장애인 인권, 이주자 인권에 관한 주제의 글이 많았으나, 신분제도, 동성애, 청소년 인권, 용산참사사건, 탈북자 인권, 노동자의 인권 등을 다룬 글들도 있어 초등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박창균의 “장애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은 손가락을 다친 것을 계기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으며, 학교에서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당연하고 별 것 아닌 것 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심각한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와 닿는다는 것을 깨닫는 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잘 드러내었습니다.

## 인권예세이 심사 총평

그 밖의 작품들도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를 학교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요즈음의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느낀 점을 다룬 작품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중등부에서는 김하은의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인권”, 임경빈의 “우리가 꿈꾸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위해”를 최우수 작품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 명제를 기호화 시킬 수 있을까?”, “우리 우정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인권이 숨쉬는 학교”를 우수상으로 뽑았습니다.

김하은의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인권”은 최근 다큐 동영상을 본 것과 자신의 독서 및 경험을 토대로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태아든 갓난아기든 고아이든 어린이든 누구이든 당연히 인권을 누려야 함을 간결한 문장으로 설득력 있게 그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숨 쉬는 학교”는 학교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를 인권적 시선에서 바라본 글로, 두발과 복장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지정된 교복 이외의 조끼나 외투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두발 규제는 물론 두발 자유에 대한 의사 표현 행위를 막는 조치 앞에서 학교는 ‘원래 다 그래’라고 체념하기보다는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중등부에서도 장애인, 이주민, 여성, 아동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작품이 많았으며, 인권 관련 사건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들에서 배워서 알게 된 것을 지금 여기 나의 현실에 적용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연결시키는 측면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 인권예세이 심사 총평

고등부에서는 신해성의 “관람도 봉사가 되는 대한민국”, 김한결의 “두개의 인권”을 최우수 작품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 “가슴 아픈 자기소개서”, “지켜야 하는 것, 지키고자하는 것”, “목숨을 걸도 얻어낸 은영이의 자유,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르지 않다”의 다섯 작품을 우수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고등부에서 “‘언론’은 있지만 ‘여론’은 없는 학교”라는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관람도 봉사가 되는 대한민국”은 장애인을 대상하여 장애인 행사를 비장애인이 관람하게하고 그것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두개의 인권”은 한국인들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이중적 대우의 현실을 고발하며 동시에 평등해야 할 사람의 권리가 빈부, 신분, 지역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르게 분배되는 점을 풍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는 이이스링크 앞에서 얼어붙었다?”는 청소년이 광화문 광장의 아이스링크장에서 일제고사 반대 의사를 적은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스케이트를 타려다 저지당한 경험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에서 고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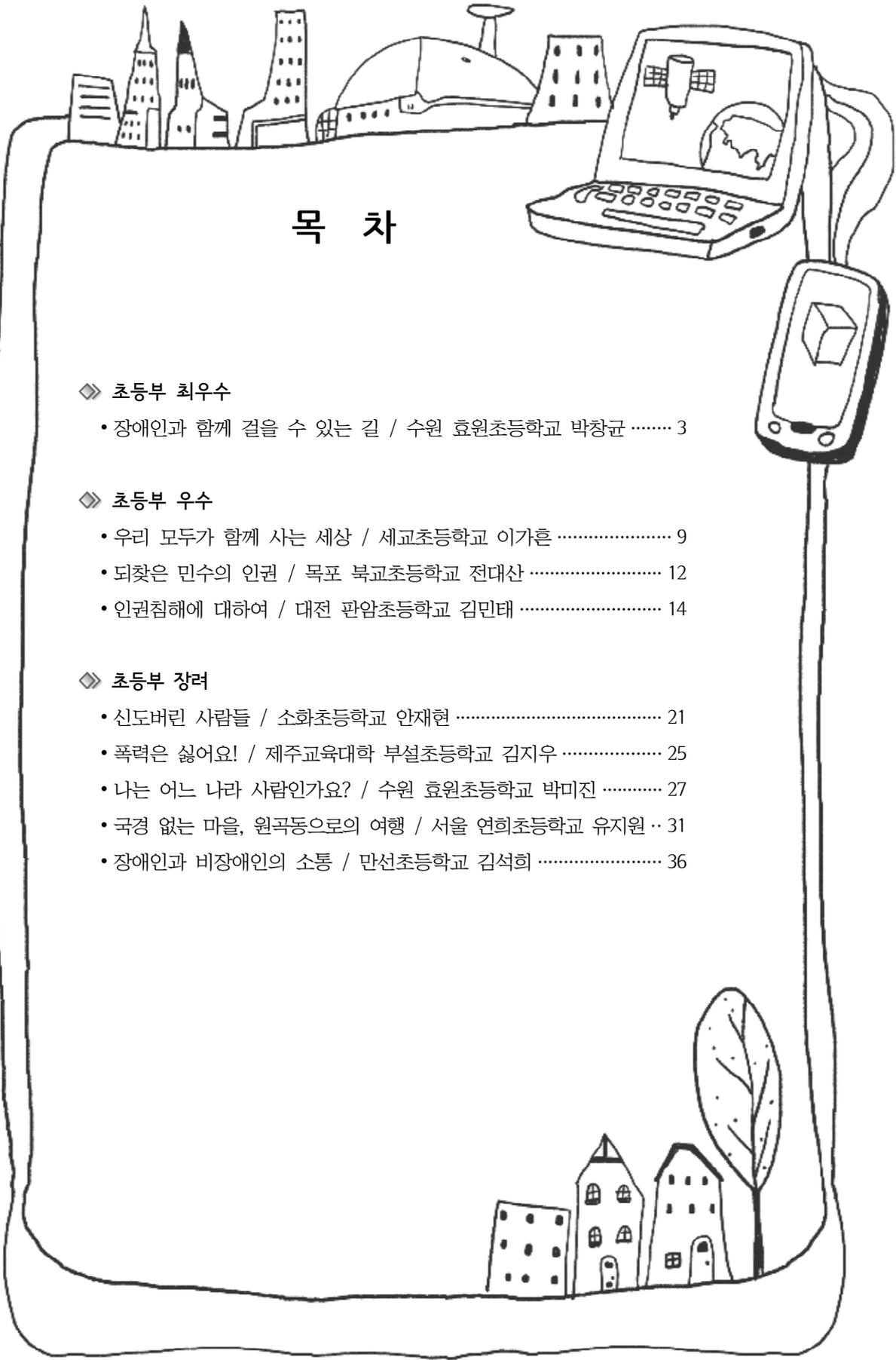
고등부에서 특히 인권 침해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드러난 작품이 많았다는 것은 고무적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인권교육에 많이 노출될수록 인권 의식이나 감수성이 세련되고 내면화 정도가 높음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타인의 고통을 지적으로 인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정서적으로 공감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거나 감소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권 예세이 공모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주변을 살펴보면 느낀 경험을 쓴 진솔한 글과 참여를 통해 인권을 옹호하는 작지만 변화를 이끌어 낸 소중한 경험을 쓴 글들이 많아지고 있음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의 글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 인권에세이 심사 총평

최근 학교에서 재량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인권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인권의 문제를 적지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시간에 배워서 알게 된 인권 지식이나 주장을 정리한 작품들도 많았고, 인권문제를 논리적 설득의 문제로 접근하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인권을 주제로 다루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상화 하지 않고 자기화한 글, 욕심을 더 내자면 높은 인권감수성 못지않게 에세이로서의 작품성도 있는 글을 기대해 봅니다.

## 4 발표 및 시상

- 심사결과 발표 : 2010. 11. 17. (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시상 : 2010. 12. 10.(금) 15: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시상식 미참석자, 상장 개별 전수



## 목 차

### ◆ 초등부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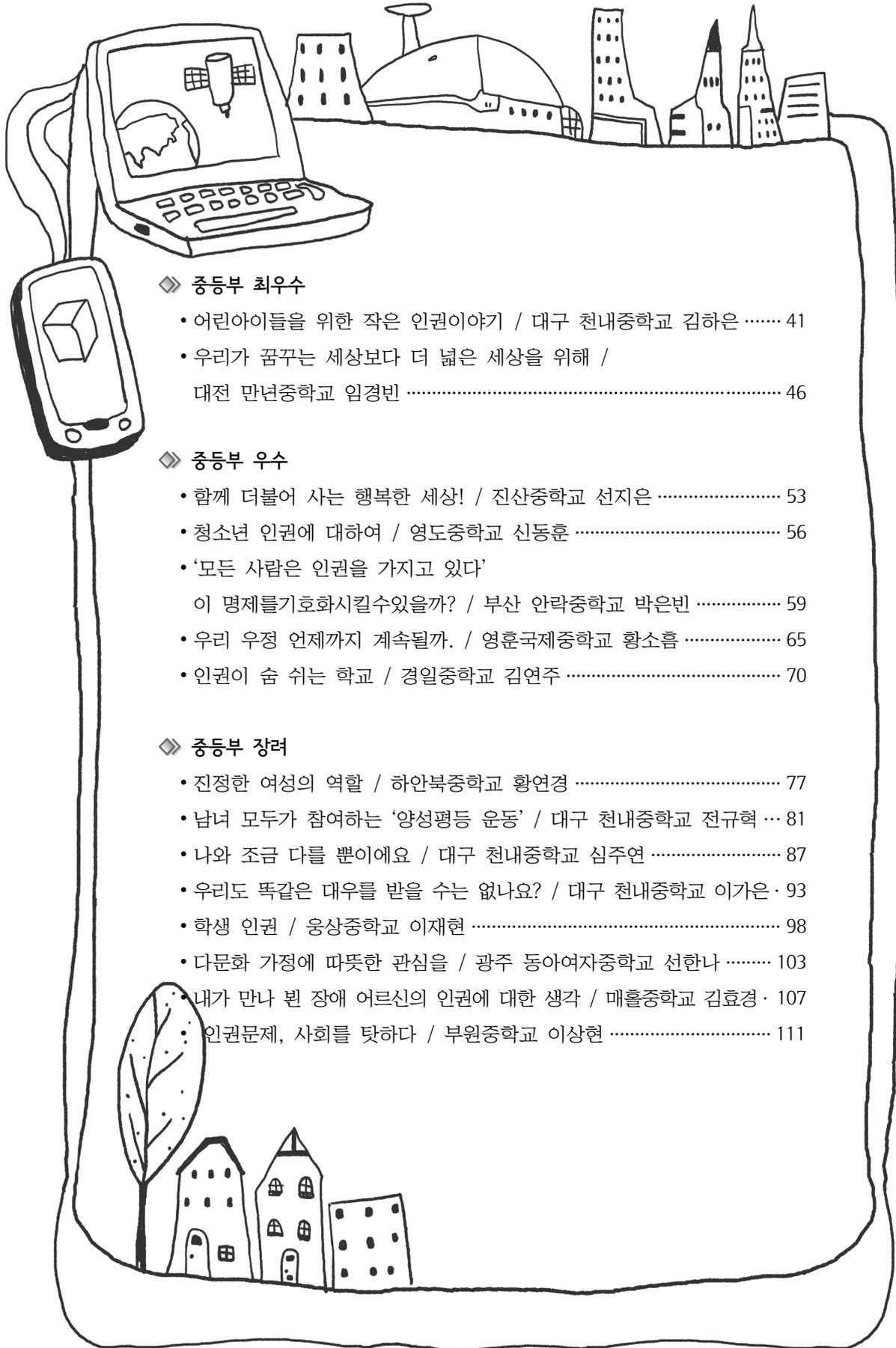
- 장애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 / 수원 효원초등학교 박창균 ..... 3

### ◆ 초등부 우수

-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 세교초등학교 이가흔 ..... 9
- 되찾은 민수의 인권 / 목포 북교초등학교 전대산 ..... 12
- 인권침해에 대하여 / 대전 관암초등학교 김민태 ..... 14

### ◆ 초등부 장려

- 신도버린 사람들 / 소화초등학교 안재현 ..... 21
- 폭력은 싫어요! / 제주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김지우 ..... 25
-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 수원 효원초등학교 박미진 ..... 27
- 국경 없는 마을, 원곡동으로의 여행 / 서울 연희초등학교 유지원 .. 31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 만선초등학교 김석희 ..... 36



◆ 중등부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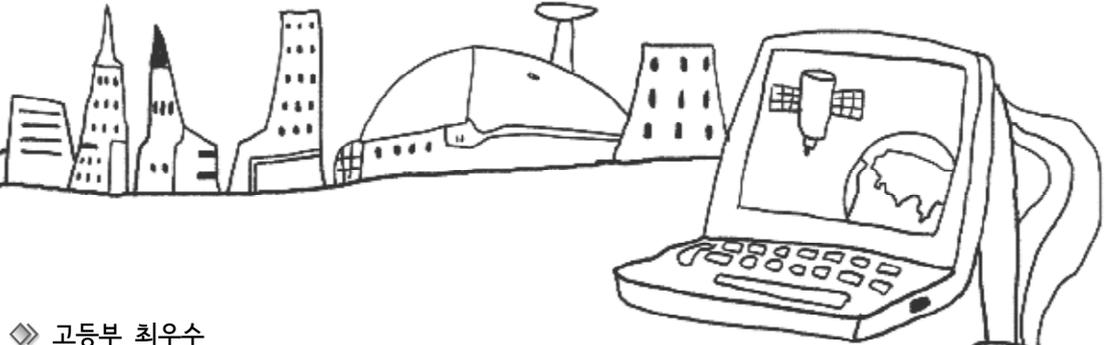
- 어린아이들을 위한 작은 인권이야기 / 대구 천내중학교 김하은 ..... 41
- 우리가 꿈꾸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위해 /  
대전 만년중학교 임경빈 ..... 46

◆ 중등부 우수

-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 진산중학교 선지은 ..... 53
-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 영도중학교 신동훈 ..... 56
-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 명제를 기호화시킬수있을까? / 부산 안락중학교 박은빈 ..... 59
- 우리 우정 언제까지 계속될까. / 영훈국제중학교 황소흙 ..... 65
- 인권이 숨 쉬는 학교 / 경일중학교 김연주 ..... 70

◆ 중등부 장려

- 진정한 여성의 역할 / 하안북중학교 황연경 ..... 77
-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양성평등 운동’ / 대구 천내중학교 전규혁 ... 81
- 나와 조금 다를 뿐이에요 / 대구 천내중학교 심주연 ..... 87
-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나요? / 대구 천내중학교 이가은 · 93
- 학생 인권 / 웅상중학교 이재현 ..... 98
- 다문화 가정에 따뜻한 관심을 / 광주 동아여자중학교 선한나 ..... 103
- 내가 만나 빈 장애 어르신에 대한 생각 / 매홀중학교 김효경 · 107
- 인권문제, 사회를 탓하다 / 부원중학교 이상현 ..... 111



◆ 고등부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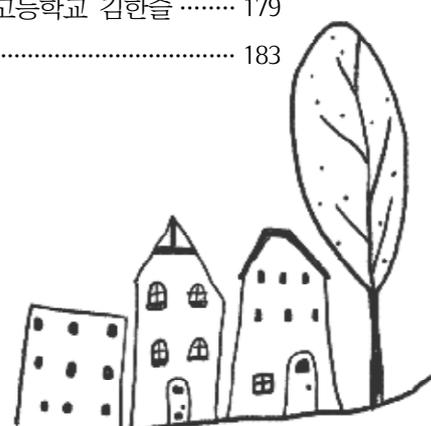
- 관람도 봉사가 되는 대한민국 / 서울국제고등학교 신해성 ..... 119
- 두 개의 인권 / 김해여자고등학교 김한결 ..... 123

◆ 고등부 우수

- 가슴아픈 자기소개서 / 효자고등학교 최서아 ..... 131
- 지켜야 하는 것, 지키고자 하는 것 / 상지여자고등학교 서지현 · 135
- 목숨을 걸고 얻어낸 은영이의 자유,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요합니다. /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김성원 · 139
- 다르지 않다 /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 범성희 ..... 142

◆ 고등부 장려

- 엄마, 나 엄마가 되었어요! / 영파여자고등학교 정지연 ..... 151
- 청소년 인권, 그 무한한 가능성 / 경남 창원고등학교 정동화 ..... 154
- 인간은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  
수원화흥고등학교안현담 ..... 162
- 사람의 특권, 인권 / 인천 문일여자고등학교 권예은 ..... 168
- “인권은 늙지 않는다” / 광주여자고등학교 최지영 ..... 173
- 인간은 인간답게 쳐다봐주세요 / 충남여자고등학교 김한솔 ..... 179
- 잔인한 배려 / 경북고등학교 최현호 ..... 183





## 초등부 최우수

- 장애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  
(수원 효원초등학교 박창균)



## 장애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

효원초등학교 4학년 박창균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는 형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한 번의 대수술을 받았다.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어제저녁까지 우리 집에 오셔서 형을 데리고 가셨는데... 매일 저녁 늦게 나가시는 일을 가시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차와 부딪혀서 큰 사고를 당하셨다. 아저씨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봄에 태권도장에서 연습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삐끗해 한 달간 깁스를 했었다. 한 달도 너무 불편했다. 손가락 하나도 불편하고 힘든데 다리를 다치셔서 휠체어를 당분간을 타셔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실까” 하며 엄마와 이야기를 했다.

엄마는 나에게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간다면 무엇이 가장 힘들까?” 라는 질문을 하셨다. 너는 학생이니 학교에 가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정말 막막한 말이다. 장애로 갖고 있다는 상상도 내가 장애를 갖고 학교를 가야한다는 상상도 엄마는 형의 아버지 이야기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실수로든지 다른 사람의 실수로든지.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학교 가는 길에 처음 만나는 걸림돌은 울퉁불퉁한 길이다. 아파트입구를 나가면 도로에 있는 방지턱과 인도로 가려면 중간중간 턱이 있어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학교를 올라가는 경사로도 휠체어를 타고 혼자 올라가기엔 너무 어렵다. 실내화를 가라신고 올라가야 하는 계단은 최악이다. 난관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4학년 3반인데 삼층에 있다. 휠체어로는 올라갈 수 없다. 친구들도 무거운 휠체어를 들어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할까? 학교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갈 수 없는 곳이 된다. 장애를 갖고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학교의 교실에 올라간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쉽게 갈 수 없다. 화장실입구가 너무 작아 휠체어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있다. 삼층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또 일층으로 내려와야 한다.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화장실을 갈때마다 1층의 장애인 화장실을 간다면 정말 큰일이다. 그렇다고 먹지 않을 수도 없다.

점심시간엔 식판을 받으러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친구가 식판을 받아 줘야 먹을 수 있다. 장애를 갖고 하루하루 생활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다. 오고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친구와의 관계는 어떨까?

친구들이 잘 대해주지 않고 늘 도와야 한다고 불평을 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어렵다. 마음이 콩알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 눈치보고 마음 조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내가 오른손 손가락이 부러져서 깁스를 해서 친구들이 불쌍한 눈으로 볼 때 '왜 다쳤을까?' 하며 후회를 했었다. 그러나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나처럼 금방 좋아지거나 다 낫지 않는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장애를 갖고 있

는 친구를 놀리거나 무시하면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 진다.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TV를 통해 정상인이 아닌 예비 장애인이 라고 배웠다.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장애를 갖고 싶어서 갖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친구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고 놀리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장애를 갖고 열심이 살아서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중 루즈벨트대통령도 장애를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장애를 갖고 있었다. 이들에게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사람은 없다. 왜일까? 장애를 이기고 나라를 빛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고 못하는 것이 없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 불편을 이기고 노력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장애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예비장애인인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고 이해한다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회사를 다니는 사회인도 당당히 자신의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길이 어렵지 않고 쉬운 길이였으면 더 좋겠다.

작은 배려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



## 초 등 부 우 수

-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세교초등학교 이가흔)
- 되찾은 민수의 인권  
(목포 북교초등학교 전대산)
- 인권침해에 대하여  
(대전 관암초등학교 김민태)



##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세교 초등학교 4학년 이가흔

행복이란 말을 떠 올리면 대부분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된다. 그렇지만 그 단어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으며 자랄 나이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나 식량난을 겪는 나라에서 굶주려 배고파하며 힘들게 사는 아이, 그리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내사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나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행복에 젖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을까?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장애체험을 한 적이 있다.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걷는다는 것은 끔찍했다. 앞과 옆에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걷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지팡이 하나만으로 불일을 보러 다니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리고 휠체어를 탈 때는 반 친구들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기구를 타듯 휠체어를 굴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들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휠체어로 그렇게 장난삼아 타다니, 나 역시 아니라고는 하지 못한다. 나는 밝은 두 눈과 건강한 두 다리가 있어

도 가끔 걸을 때나 땀 때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정말 대단하다. 장애인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고 깊은 반성을 해야겠다.

지난주에 나의 가족이 오랜만에 대형마트에 갔을 때 나는 깨달은 것이 있다. 이리 저리 다니며 물건을 사다가 생활용품을 싸게 파는 코너로 갔다. 거기에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휠체어를 탄 두 사람이 우리 옆으로 다가오더니 물건을 뒤적이며 고르고 있었다. 다리를 보니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나도 모르게 눈이 다리 쪽으로 간 것이다. 나는 장애인들을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데 이런 점도 고쳐야겠다. 그 사람들은 무엇에 쓸 것인지는 모르지만 휠체어에 앉은 채 물건을 고르다가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떨어진 물건을 어떻게 할까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는데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건을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누가 할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따지지 말고 아무나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것인데 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려움 속의 장애인이 아니었다.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같았다. 쇼핑을 하는 내내 그 장애인 부부의 모습은 비장애인보다 더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고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함이 가득 차 있어 보기가 참 좋았다.

가끔 나는 꾸중을 들을 때면 엄마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행복에 겨워서 어려운 걸 몰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엄마의 말이 잔소리roman만 생각했지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고 내 손길과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 봐야겠다. 요즘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뿐이고 나처럼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 자신부터라도

말 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올해엔 RCY에 가입했는데 봉사정신을 올바르게 가져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내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비장애인 보다는 장애인을 배려하며 도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장애인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으니깐요…….”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길 진심으로 바란다.

## 되찾은 민수의 인권

전남 목포 북교초등학교 4학년 전대산

내가 학교나 길에서 만나는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나처럼 몸이 건강한 어린이보다 생활하기가 몇 배는 힘들 것이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친구들이나 신체 보조 용구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지만 신체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떠 오른 것이 민수의 얼굴이었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인권문제였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없이 장애를 갖게 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 같은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그 친구들이 신체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 내세워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반에는 한쪽 발을 저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이름은 민수이다.

민수는 공부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발표를 하고 숙제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해오고 있지만 체육 시간만 찾아오면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우리들 모습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곤 하는 친구이다.

나는 그런 민수를 볼 때마다 안스러운 생각이 든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우리와 다른 것은 다리 하나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나는 회장이 되고 나서 우리 반 친구들과 회의 시간에 이 문제를 말한 적이 있다.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라도 차별하지 말고 서로 힘껏 도우면서 사이좋게 1년 동안 생활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의가 있는 며칠 후 신체장애를 가진 그 친구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장애자의 인권은 손으로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기에 장애인 친구들에게 찾아 주어야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내가 그냥 모른 척 하고 말았더라면 민수는 지금도 한쪽 발을 절면서 다른 친구들의 심한 놀림과 시달림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발을 조금씩 절면서도 당당하게 축구 경기에 참가하여 힘껏 공을 뽕뽕 소리나게 차는 민수의 까맣게 탄 얼굴을 보면 아직도 찾지 못한 장애자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나는 우리 학급에서처럼 다른 친구들도 힘이 약하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약점 하나를 들추어내어 왕따를 시키며 즐거워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인권 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부터 잃어버린 인권을 찾아주는 인권 사랑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

## 인권침해에 대하여

대전판암초등학교 5학년 김민태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다.

내가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권리,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인권이다.

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인권 침해란 무엇인가? 아까 말한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 인권 침해이다.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예가 전태일이다. 많은 아이들에게 전태일을 아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나도 전태일에 대해서는 그냥 분신자살을 했다는 것 외에는 알지 못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은 알지 못했다. 사실 전태일에 대해서는 올해 봄에 '태일이'라는 만화책을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옷을 만드는 산업이 있었다. 그 일은 사장, 미싱사, 시다, 미싱 보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물론 사장은 시다(가장 아래)를 일하게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적당히 일하게 해야 한다. 시다도 사람이기 때문이다.(그 당시 시다는 대부분이 어린 여자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사장들은 1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새벽 5~6시부터 밤 10~11시까지 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동생이나 오빠에 학비를 벌려고 일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생이나 오빠는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된다. 제대로 된 창문 하나도 없는 실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어서 폐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사실 그렇게 죽은 어린이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사장은 알아서 하라는 듯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작은 보상이라도 해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살다가 전태일과 다른 동료들은 시위를 한다. 그 때 전태일은 분신자살을 택한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그 일 이후로 그런 일은 점점 사라져갔다.

또 다른 인권침해 사례는 노예제도다. 미국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나, 반대하냐로 전쟁까지 하지 않았는가.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노예는 인권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노예시장까지 있지 않았는가.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하루 10시간이 넘는 일을 시키고 밥을 한 끼만 쥐도 아니 한 끼도 주지 않아도 주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노예에 대한 사람들에 인식은 ‘재산’ 또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옛날 귀족,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반들은 더 잘살수록 노예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옛날 중국에서는 주인이 죽으면 그 주인을 따르던 노예나 하인들을 주인과 같이 산 채로 묻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것도 노예나 하인들에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다. 내가 만약 노예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 나는 어린아이라서 많이 힘든 일을 주인이 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말이다. 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노예들이 대신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겠지만 노예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었을 것이다. 노예도 사람인데, 많은 권리가 있는데 주인들이 노예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것도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흑인들을 무시하는 것도 인권 침해다. 지금은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약간은 남아있다. 흑인 차별을 없애버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다. 첫째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이다. 우리나라가 그리스, 우루과이와 경기를 치루었던 포트엘리자베스 넬슨 만델라 베이 경기장은 그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기념하여 만든 경기장이다. 그 당시에도 흑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남아공도 백인이 많다), 대통령이 되려면 아주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계기 두 번째는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의 대부분은 본 뿌리가 미국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 넬슨 만델라, 버락 오바마. 이 두 사람으로 인해 흑인 차별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다.

인권 침해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바로 왕따이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왕따를 시키는 아이가 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사실 나는 왕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왕따가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의 편에 붙어있다. 왕따가 당하는 인권 침해는 반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권리 침해, 반 아이들과 즐겁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등 등 아주 많은 권리들을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로부터 침해받고 있다.

나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하루에 대부분을 학원에서 보내게 하는 것도 일종의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아이들도 집에서 즐겁게 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 1~2개 정도를 다니는 것은 인권 침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원 7~8개를 휴식시간도 없이 연달아 다니게 한 뒤 저녁시간이나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숙제 하고 자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가고 저녁 먹고 숙제 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학원을 여러 가지 종류를 다니게 되면, 정작 중요한 학교 공

부를 소홀히 하게 된다. 그것도 인권 침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다.

우리 아파트 같은 작은 아파트가 아닌, 서울, 수도권 지역의 비싼 아파트를 가 보게 되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시카메라가 셀 수도 없이 많이 달려있다. 심지어는 집에도 감시카메라가 달려있다. 우리 큰아버지께서 사시는 인천에 가면 비싼 물건이 있는 방에는 감시카메라가 달려있다. 만약 모든 방에 감시카메라가 달려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감시카메라가 찍은 화면이 경비실로 보내진다면? 집에서 마음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경비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지 범죄행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집에 감시카메라가 있고 그 감시카메라가 찍은 것을, 즉 우리 가족이 한 행동들을 모두 경비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집안은 조용한 분위기가 되어질 것이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잘 들어가지 않는 방에 귀한 물건들을 보관해놓고 그 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방에 심지어 거실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권 침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 초 등 부 장 려

- 신도버린 사람들 /  
소화초등학교 안재현
- 폭력은 싫어요! /  
제주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김지우
-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  
수원 효원초등학교 박미진
- 국경 없는 마을, 원곡동으로의 여행 /  
서울 연희초등학교 유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  
만선초등학교 김석희



## 신도버린 사람들

소화초등학교 5학년 안재현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지만 그만큼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마이크로 소프트, 빌게이츠 회장부부). “일정 규모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모든 돈을 다 쓸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다.”(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얼마 전 신문에서 놀라운 기사를 읽었다. 빌게이츠와 워런버핏 회장의 주도로 출발한 ‘기부약속’에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참여하여, 부자들의 기부행위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자 특권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들의 행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가치관에 따른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도대체 사회 지도층에게는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일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나라면.....?’ 온갖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머릿속이 복잡해 졌다.

나의 이러한 의문들은 며칠 뒤 서점에서 발견한 한 권의 책을 통해 해소되었다. ‘신도 버린 사람들’..... 처음엔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고 축복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일까? 심지어 이 책은 인도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인도 푸네 대학 총장이며 앞으로 인도 대통령이 될 인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렌드라 자다브가 직접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쓴 것 이라고 했다. 나는 머릿속에 물음표를 잔뜩 그린 채 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주인공인 다무의 부모님은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있는 인도에서 태어났다. 카스트 제도란,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겨 차별을 하는 것으로 3500년 동안 인도에서 내려오던 제도이다. 가장 높은 계급은 '브라만'으로 승려들이 해당 되었고,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로 왕이나 귀족이 속했으며, 상인은 '바이샤'계급이고, 일반 백성은 '수드라'계급에 속했다.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층 계급이 바로 불가촉천민이었다. 이 신분제도 안에서 '불가촉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열등한 사람으로, 달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을 더럽힌다고 여겨졌다. 게다가,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교육을 받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어린 다무는 목이 말라도 마음대로 물을 먹지도 못한다. 물을 더럽히면 벌을 받게 되니 허락을 받고 손바닥으로 떠서 먹어야 했다. 불가촉천민은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들이어서 침이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질까 봐 목에 침을 담는 그릇을 걸고 다녔고, 더러운 발자국도 땅을 더럽힐까 봐 엉덩이에는 자신의 발자국을 지울 수 있는 빗자루를 매달고 다녀야 했다. 참으로 비참한 개보다도 못한 신세였다. 하지만, 다무는 자신의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고, 결국, 1950년에 불가촉천민이라는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신도 버린 사람들’은 존재했다. 그들은 신이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가난이나 천한 신분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고, 사회의 관습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빈 밥그릇을 들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이 차려진 화려한 밥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유 없이 굶주려야 하는 삶이라니 억울해서 땅을 칠 노릇이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 곳곳에는 ‘신도 버린 사람들’이 존재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누군가는 평생을 바치는 치열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주식 1%이상을 써도 행복과 삶의 질이 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99%는 다른 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하며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다. 이제 나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가 기회를 줬기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만큼,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1%만 남기고 사회에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이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들을 감사히 여기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단지, 우연히 서로 다른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뿐이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가진 소중한 권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마음을 다하여, 내가 누리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

갈 것이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는 형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한 번의 대수술을 받았다.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어제

## 폭력은 싫어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6학년

“세상에! 이럴 수가!”

얼마 전 신문에서 용산 철거민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경찰들이 강제 진압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죽은 기사였다.

이런 참사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용산에서 세를 내고 살던 사람들이 철거에 반대하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정부에서 나오라고 하고 보상도 적절히 안 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살 수가 없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철거민들이 그대로 쫓겨날까?

결국 경찰들과의 충돌이 생겨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 철거민들은 화염병 등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것으로 철거민과 경찰들 중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는 고민을 했다. 국민이 만든 정부가 대책 없이 국민을 길거리로 내모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다. 힘이 없다고 무조건 쫓아내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선진국이라는 것이 참 창피하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쳐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유야 어떻든지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고서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폭력으로 하지 말고 양쪽의 충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얼마나 큰일을 만들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것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져버렸다. 지금도 희생자들 가족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듯하다.

나는 우리 사회가 이것을 본보기로 어떤 문제든지 폭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해 서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수원효원초등학교 6학년 박미진

2010년 1월 15일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한명의 친구는 북한에서 탈출을 준비했다. 북한의 군사정치와 정권 김정일 동지가 매우 불쾌했다. 배고픔은 제일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남조선의 언어를 배우려 하지만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우리는 계획을 짰다. 밤에 몰래 탈출하여 중국으로 도주하고, 그곳에서 대사관에 들어가 제3국을 정하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목숨을 건 탈출과 시도이다. 우리의 시도 날짜는 1월 17일 이다. 나는 잠을 자기 전 나의 형에게 물어 보았다. “형 곶밥을 챙겨야 하우?” 라고 이야기 하자 입을 틀어막았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탈출 할 수 없어도 너희들은 가야 한다. 어떻게 하는 너희들은 남조선을 가여해.” 아버지께서 이야기 하셨다. 어머니도 “너희들은 조선 인민공화국에서 살 필요는 없다. 2010. 7월 17일 날 너희들만 가라. 우리까지 가면 늦어진다.” 어머니께서 한숨과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셨다. 나와 형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울음을 터트렸다. 나지막하게.

오늘은 동무와 만나기로 하였다. 내일 출발하는 거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몰래 만나서 동무를 보니 무척 맘이 노였다. 날썩 몸에 북한인 이라는 생각을 저버릴 남조선 언어 솜씨가 매우 부러웠다. “동무 거사는

시작할거여?” 동무가 물었다. “역시 밤이 나온 것 같우. 형이 이야기 했다. “그러우. 알았소.” 거사의 날을 잡고 우리 모두 흠어 졌다.

거사의 날 밤이다. 동무는 일찍 나와 있었다. “동무 내가 이야기한 분들이 요.” 형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리학자라고 거짓보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리학자라 해도 진실로 믿을 수 있다. 지리를 잘아시기 때문이다. 동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럼 지리학자 동무 출발 합세다.” 동무가 급하게 이야기 했다. 우리는 먼저 중국의 심양으로 갔다. 심양은 북한인이 잘 숨는 곳이다.

우리는 먼저 다시 작전을 가다듬었다. “동무 이제부터가 시작이여, 잡히면 끝장인 겨.” 형이 비장하게 이야기 했다. “알아야 동무 심양이란 이곳에서도 언제 잡힐지 몰 라여, 지금당장인지 내일 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동무는 역시 비장했다. “그러도, 우리 남조선에 가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아닌 가에.” 가족들과 동무에게 이야기했다. “그러. 맞수 어린야가 말을 잘합니다. 맘 풀고 곱밥이나 먹읍시다. 아! 남조선에서는 곱밥을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남조선 어를 익혀야 합니다.” 형은 “좋소. 곱밥은 도시락, 알았소. 동무.” 우리 형 역시 비장했다.

아침이 되었다. 남조선에 가기 위해 움직이던 우리는 마트 앞에서 멈추었다. 동무가 얼음보숭이인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것이다. 동무는 영어라는 언어도 할 줄 알았다. “How much is this?” 동무의 언어는 참 신기 하였다. 그러자 중국인은 손가락을 보였다. 동무는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참 맛있었다. 김정일, 김일성 동지의 생일 날 만 먹을까 말까한 것을 먹다니, 참 맛있었다.

그 순간 동무가 이야기 했다. “저기가 미국 대사관이유, 아까 한말도 미국

언어우,”라고 군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 군사를 피하여 모두가 간신히 들어갔다. 동무는 “이곳은 중국 땅에 있지만 미국의 땅이야, 대사관은 그 나라 땅이라는 것이라오,” 동무가 침착 하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거사를 시작했다. 들어가자 코가 크고 허연 사람에게 들키고 말했다. 그 순간 동무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모두를 불러서 무언가를 쓰게 했다. 제 3국을 우리는 남조선을 썼다. 모두들 기뻐서 소리쳤다. 살아 있는 것과 남아 있는 것 들키지 않는 것 그리고 남조선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북조선을 탈출하고 중국을 탈출하여 남조선에 우리가족은 모두 왔다. 남조선은 환영해 주었고, 몇 평짜리 아파트와 매달 약 25만원씩 우리에게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북조선어로 인해서 취직을 못하셨다.

사람들은 “북한사람들을 믿기가..... 어렵게 북한을 탈북하고 왔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오지만 얼굴에는 웃음 없이 한숨만 가지도고 있다.

매일 아침마다 “일자리 알아보고 최대한 취직하고 오겠다.” 라고 말하시고 밤늦게 오시며 “못 찾았다. 미안하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하셨다. 아버지는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너무 힘들어 보였다.

학교에서는 천안암 사고가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의 46명의 용사가 돌아가 셧어! 이 북한인아! 너희나라로 가버려!” 라고 아이들은 소리 쳤다. 내가 한 행동도 아닌데 북한의 군사정권이 한 행동인데 내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모두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나도 북한이 싫어서 도망을 온 것이다. 군사 정권과 배고픔이 싫어서 도망쳐 나왔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넘어 왔는데 다들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남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은데 오늘도 나 혼자 이다.

아무도 나와 놀려 하지 않는다. 북한으로 가도 안 되고 남한에서는 웃으며 함께 살기가 어렵다.

과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북한 사람일까? 한국 사람일까?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이곳 또한 우리를 편안하게 받아 주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정착자금을 주지만 그것으로 학교와 생활을 다 할 수 없다.

우리를 북한이 내 몰아 갈 곳이 없는 사람들로 만든 것처럼 이곳에서도 갈 곳이 없다. 탈북자라는 우리는 어디에 속해 함께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북한에 계신 우리 친척들은 과연 건강하게 살아계실까? 북한에서 호구조사를 한다는 방송을 보았다. 우리가 사라진 것을 찾아낸다면 분명 속칭당하실텐데.....

이곳에 모시고 오고 싶지만, 생활하기도 벅찬 지금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북한에 대한 편견과 미움이 새터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겐 허물기 어려운 벽으로 다가온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학교에서 하루를 지낼까?

## 국경없는 마을, 원곡동으로의 여행

서울 연희초등학교 유지원

드디어 일주일간의 안산 원곡동의 국경 없는 마을 여행이 끝났다. 코시안, 외국인 노동자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생생한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 불법체류가 발각돼 잡혀가진 않을까하는 걱정, 밀린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세상 모두에게 근심거리가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특별하게 많이 주어진 것 같다. 우리는 그들을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어려운 일 대신 해주는 사람’, ‘불쌍한 사람’ 취급 했었다. 다 같은 사람이고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우리보다 미개한 자로 보아 왔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오해의 꺼풀이 사라졌다. 아직은 작은 편견 따위가 남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을 이해 할 수는 있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여름방학 때 호주의 이모댁을 방문해 학교를 다니며 호주의 문화를 접하고 배웠다. 호주에 와 보니 이곳 아이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머리색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모두가 ‘친구’ 라는 개념이었다. 내가 이곳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지만 한국과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랐다. 우리는 모르는 척 하고 무시하지만 여기는 나의 모든 것이 예쁘다고 칭

찬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었다. 학용품, 신발, 시계 심지어는 머리카락 까지 모두 “Pretty!!”라고 해준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다. 호주는 이민을 받아들여 여러 민족이 함께 산지 오래여서 그런지 내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받는 불이익은 없었다. 한민족만을 고집하는 우리나라도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백인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동남아시아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일까? 백인보다 더 우리와 닮고, 비슷한데..... 우리에게 있는 편견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에 사는 동남아시아 사람은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경 없는 마을 주민의 이야기가 그것을 알려준다.

꼬마 띠안은 한국인 엄마와 인도네시아인 아빠 사이에 태어난 코시안이다. 인도네시아에 한 번도 가 본적 없는 인도네시아 아이이다. 이 순수한 아이는 인도네시아 가는 것을 너무 설레 하고 기다린다.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아이 띠안이 한국을 떠나게 되면서 걱정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도 ‘맛동산’이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띠안 아버지는 20살에 한국에 와서 청춘을 이곳에서 보내고 한국 여자와 결혼해 띠안을 낳았다고 한다. 아내가 가출해서 혼자 힘으로 띠안을 키운 훌륭한 아빠이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한국 국적을 따게 될까? 궁금증을 갖고 책을 더 읽어 내려가니 답이 나와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채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 하면 영주비자를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 충분한 교제 없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시댁으로부터 폭력이나 낙태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말 화가 났다. 사랑해서 결혼할 땐 언제고 말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고 때리다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쳤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누리끼씨의 친구 초리씨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다. 초리씨는 공장에서 프레스를 다루는 사람이다. 그는 2년 동안 프레스를 다루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고장 난 기계에 손이 들어가 오른손이 못쓰게 돼버렸다. 그는 2700만원의 보상금과 6번의 수술을 받았다. 나는 젊은 청년의 미래를 잃는데 대한 보상이 27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 그들은 불법체류자라 부당한 대우를 고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을 정부부터 보호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원곡동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7년 쉼터지기 재호 아저씨는 말한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다고. 뺨질거리고 남들 하는 일은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도 싫어하는 사람이요, 자기 처지도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은 어딜 가나 반기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저씨의 이 말씀은 외국인 노동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을 부수어 준다.

외국인과 7년 살다보면 겪을 일 못 겪을 일 다 겪었을 것 같다. 아저씨는 이곳의 관리자이니 단속 때면 사람들을 정리해 주셔야 한다. 모두 친구같은 사람들인데 그중에서 몇 명을 빼내야만 하는 아저씨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 이러던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해 돈을 벌면 자국에서 버는 돈의 몇 배는 벌 수 있어 가족과 헤어져가며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미국, 영국, 일본..... 그중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독일인과 같은 권리를 준다고 한다. 40년 전

우리나라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광부나 간호사일을 하러 서독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2년 계약을 연장해 오래 머물기도 하고 또는 그곳에 남아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5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외국에 나가 외화를 벌어들여 오신 분들에 의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예전의 우리의 처지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를 좀 더 인간답게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의무적으로 초, 중등학교를 다니게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들은 코시안이 가면 거절해버리고는 한다. 자기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다는 이유이다. 몽골에서 온 늦깎이 고등학생 때와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 교장선생님이 없다며 눈앞에서 문전박대를 하거나 안 된다고 거절하곤 했다. 분명히 법에 쓰여 있는 바로는 ‘불법체류자 어린이도 초, 중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인종, 피부, 언어, 정치전, 사회적 또는 사회적 출신 등의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돼있다. 한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인 어린이를 공부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만약 학교에 간다 하여도 친구들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리거나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지금 다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나는 우리가 직접 다문화 친구를 만나보고 그 친구와 친해져 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 일 것 같다.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이라는 어찌 보면 작지만 세계가 모인 마을 탐험이 끝났다. 나중에 원곡동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미래의 영화 감독 재키, 센터지기 재호 아저씨... 모두 만나보고 싶다.

다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호주인들에게서 나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를 깔보는 마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기피하고 안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꼭 필요하고 고마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나처럼 좋은 추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대해줘야 한다.

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땐 다른 친구를 이해하고 다르다고 놀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겠지? 그 때는 국경 없는 마을에서 더 나아가 국경 없는 나라가 되어있겠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만선초등학교 4학년 김석희

나의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 이다. 내가 어릴 적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기만 하는 아빠가 밍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이제 아빠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해보고 싶다.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기도 한다. 난 이 글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소통'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보고 싶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빠는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어디에고 장애인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눈을 잘 못 보는 시각장애,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든 지체장애인 등이 그 예이다. 대화하기 힘들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장애인도 사람이고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학생인 나도, 또한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범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료를 조사하다 발견한 것인데 '일본에서 한 사람이 살해를 당했는데 범죄자의 신원, 사진, 정보가 공개되자 그 범죄자가 살해를 당했다'는 얘긴데 진짜 실화일지 의심이 가긴 한다. 이 뉴스기사로 보았을 때 누구에게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게 된다.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몸이 불편하고 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일지라도.. 소리가 잘 안 들려

서 보청기를 끼는 우리 아빠일지라도.. 소통이 안 되면 내가 먼저 이해하고 가르쳐 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모두 소통할 수 있다. 말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모든 장애인에게 인권이 있다. 모두 사람이고,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 비장애인에게 혜택이 있고 장애인에게 혜택이 없다면 같은 사람으로서 분명 인권 차별이다. 인권이 있으니 동물에게는 동물보호법, 나라에는 국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낄 것인가. 세상에 인권에 대한 차별이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하고 조금씩만 노력하면 우리 모두 평등한 사회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인권은 어떻게 지켜질까? 바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인권도 모두 사람이 생각하고 만든 것이고 사람을 생각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1948년 12월 3차 국가연합회의 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의 존중과 평화를 위해 사람을 위해 채택된 이 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다. 그 중 제21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 등에 관해서도 표기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 뜻깊은 선언이었다. 모두 사람을 위해서 채택된 선언이었다. 이처럼 선언을 하며 인권을 보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인권으로서 적절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도 , 모든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주거, 생활환경 등을 보니 큰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년 전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다니는 동현학교에 갔다. 그곳에는 말은 잘 못하지만 순수한 친구들이 한 교실에서 재미있고 일반적인 수업을 받고 있었다. 차별이 없는 것 이었다. 그런 장애인 아

이들도 보살핌 받을 수 있는 인권이 있다. 청각장애인도 ,지체장애인도, 몸이 불편한 동현학교 학생들도 이 세상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인권과 장애인 그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범이고 모두 인권 그 자체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나 권력,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살아 움직이는 법이야말로 사람이다. 법도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들었고, 사람을 위해 쓰이고 사람을 존중해 주기 때문이다.

인권과 법의 산 증인은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동물과, 나라, 그리고 물건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은 살아있는 생명이자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인권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은 확실하고 짧지만 좋은 기회였다.

## 중등부 최우수

- 어린아이들을 위한 작은 인권이야기  
대구 천내중학교 김하은
- 우리가 꿈꾸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위해  
대전 만년중학교 임경빈



##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인권이야기

천내중학교 2학년 김하은

아우야, 오늘은 초롱한 눈빛으로 나의 애길 기다리는 너에게 인권에 대한 애길 들려주고 싶어. 예전엔, 인권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작은 법이라고만 생각했었어. 누구나 태어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우연히 보게 된 동영상과 여러 체험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단다.

지금부터 난 인권 중에 하나인 아이에 대한 인권에 말해 주도록 할게. 얼마 전, 우연히 보게 된 낙태동영상은 나에게 큰 상처와 동시에 큰 충격이었어. 아주 작은 핏덩어리였지만 그 조그마한 아기가 가위에 찢겨 조각나 있는 모습이 지금도 너무 선명히 눈앞에 보이는 듯하구나. 아직 털 만들어진 조그마한 아기지만 그래도 그 아이도 숨 쉬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아이 또한 작은 생명이라는 것이지. 어느 날 엄마의 따뜻한 뱃속에서 살던 아이에게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 그 아이를 공격한다면 그 아이 또한 무서웠을 것이라고 생각해. 저번에 '산부인과'라는 드라마를 볼 때 많은 아기들을 봤어. 선천적인 병을 앓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저 멀리 가버린 아이,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아기가 있어. 엄마 뱃속에서 먹고 자고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자랐지만 입 쪽에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 아이의 아빠

는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그 아이 또한 마음의 문을 닫았지.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날, 그 아이는 빛을 볼 수가 없었어. 자신의 아빠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아이는 탯줄로 자신의 목을 감아 숨이 막혀 죽게 된 것이었어. 그 아이 또한 살 수 있는 기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도 말이야…….

요즘 부모들은 아기를 낳기 전에 처참히 죽여 버리거나 낳아서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하고도 무서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하지만 솔직히 나도 그런 일이 막상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나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잘 모르겠어. 만약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딘가가 아픈 아이라면 나도 그 아이를 갖다 버렸을까?

너는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어. 입천장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고비였고 태어나자마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아야 했지. 난 그때 어려서 잘 몰랐지만 많이 심각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저절로 저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단다. 엄마는 항상 “이 아이도 살 권리가 있으니 조금이나마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겠니? 그러니 엄마는 네 동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어.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건강하게 뛰어다니지. 그 때 만약 내가 그 상황의 엄마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난 어릴 적부터 많은 상상을 하곤 했어. 내가 특히 제일 많은 상상을 한 것은 내가 고아가 되는 상상이었어. 그 이유는 ‘빨간 머리 앤’이라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매일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앤과 대화를 했기 때문이었지. 그 앤이라는 친구는 고아였거든. ‘빨간 머리 앤이 어렸을 적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앤의 친부모이야기와 앤의 아기시절, 그리고 고아원에서의 이야기, 마지막 엔딩으로 입양 가는 이야기가 나온단다. 잠시만 이야기를 들

려주도록 할게…….

버사 셸리와 월터 셸리라는 행복한 부부가 살았어. 그 행복에서 ‘앤 셸리’라는 특별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지.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해 깨지고 말았단다. 두 부부는 모두 열병으로 저 멀리 떠나게 되어 버렸거든.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앤을 데리고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앤을 사랑해서가 아닌 두 부부의 가구를 가지고 싶어서였어. 그 집의 개구쟁이들은 항상 앤을 괴롭혔고, 앤은 고아라는 이유로 항상 집안 살림을 해야 했어. 하루에 몇 분도 쉴 틈 없이 심부름하고 아기를 돌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야 했지. 이 모든 것을 앤이 다섯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해부터 해왔단다. 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학교가 갈 나이가 되어도 항상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했고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가짜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그러던 어느 날 앤은 학교를 다니게 되고 주위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해졌지. 집 안에서는 거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지. 하지만 두 번째 집에서도 더 이상 앤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버렸어. 결국 앤이 그토록 가기 싫다고 저주하던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그곳은 거의 행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단다. 군대처럼 질서가 엄격했고 사랑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이었어. 그리고 옷 또한 그곳에서 나누어 주는 옷만 입어야 했고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상자 안에 담을 수 있는 것 뿐이었어. 앤은 그곳을 결코 좋아할 수 없었어. 그러다가 결국엔 입양자가 나타나 앤은 고아원을 떠나게 된단다.

내 어릴 적 꿈은 고아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재워주고 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만 같았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꼭 고아원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앤 때문이었어. 고아원에 가면 앤 같은 아이를 꼭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있었거든. 그리고 고아원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을 키워 주는 게 난 너무 대단해 보였던 거지. 하지만 실제로 고아원들은 다 그렇지 않았어. 언젠가 TV에서 아이들이 갇혀서 수용소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 음식이라곤 쓰레기 같은 음식이 다 썩어 곰팡이가 핀 것밖에 없었고, 잠자리도 사람이 잘만한 곳이 못 되었지.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나올 만큼 보기 힘들었고, 나중엔 마음이 찡해져 눈물이 나기도 했어. 그래 놓곤 자신들은 아프고 힘든 아이들을 보보호해주고 있다고 했지.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와 인권을 동시에 빼앗아 가 버리고, 일을 해도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노예처럼 부러먹기도 하고 밥을 굶기고 조금만 잘못을 해도 크게 혼을 내고,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나누어 주는 누더기 옷을 입어야 했지. 그걸 보고 갑자기 고아원이란 곳이 군대처럼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져 버렸어. 그곳은 얼음장처럼 무척이나 차갑고 어두운 곳이었지. 나중엔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겠구나 생각해서 더욱더 고아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지. 하지만 난 비웃음을 받았어. 내 장래희망이 고아원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웃음거리가 되었지.

어릴 적 내가 미술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곳에서는 내가 그리고 싶은 것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렸단다. 결국 그 곳에서 쫓겨나 버렸지만 말이야. 원래 그 학원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만 꼭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싫었어. 어려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마음대로 그 아이를 판단하고 명령하고 무시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을까?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사람은 태아든 갓난아기든, 고아이든, 어린 아이든 똑같이 숨 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란다. 또한 명령과 무시가 아닌 사랑으로 보살피 주고 항상 옆에서 지켜 봐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빛을 보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영원히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작지만 큰 선물이 바로 ‘인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을 지켜 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뱃속에서 무서운 괴물과 싸우고 있는 아이, 키우기 귀찮다고, 아픈 아이라 보기 흉하다고 길거리에 고아원에 버려지고 있는 아이,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명령만 받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아이들을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어.

나도 어렸을 적 무시당하고 명령 당하던 아픈 기억이 많아서,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줄여주고 싶어. 내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살피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꼭 그 아이가 인권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 줄 거야. 우선 가까이에 고아원이 있다면 가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돌봐 주고 싶어. 그렇게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 아이들을 위해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다 보면 꼭 언젠간 내가 원하는 아이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믿으니까 말이야.

## 우리가 꿈꾸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위해

대전만년중학교 2학 임경빈

우리가족은 여름휴가를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에서 가족의 정을 듬뿍 느끼고,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기로 가족의 의견을 모았다. 가족들은 여행지를 선정하면서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여행지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가족들은 가족여행을 오랜만에 가려다보니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 심정에 한참을 망설였다 시간만 흘러 보내며 자정을 훌쩍 넘겼다. 가족여행의 행선지를 선정하느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님은 여행지 한곳을 제안하셨다. 그곳은 부모님께서 결혼하시고 첫 여름휴가 때 다녀오신 청양에 있는 칠갑산 중턱에 자리 잡은 산촌마을이었다. 가족들은 부모님의 옛 추억들이 그대로 서려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발동하면서 가족들은 만장일치로 산골마을로 여름휴가 여행지로 결정하였다.

도심을 지나 여행지로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비쳐지는 산천은 고요하고, 깨끗해서 가족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찾는데 커다란 선물이 되었다. 어느새 맑은 공기가 차창문 안으로 들어와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놓아 가족이 함께한다는 의미에 행복이 차안에 가득하였다. 또 자연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에게 가족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새롭게 펼쳐질 세상에서 행복

한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풍경이었다.

가족은 여행지에 도착해서 미리 예약한 민박집에 여장을 풀고 마을을 구경하기 위해 마을 어귀로 나갔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떠난 여행에 마음껏 취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흐뭇한 시간이었다. 마을이 한참 번성하던 시기에는 100가구 이상이 모여 이웃에 정을 느끼며 오순도순 가족같이 지낸 정겨운 마을이라고 한다. 이정도의 마을규모는 시골 마을치고 꽤 큰 마을에 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로 다 떠나고 30여 가구만 살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된 전형적인 시골 산촌 마을이다. 산업화사회로 변모하면서 마을규모가 쇠락한 것을 보니 우리의 농촌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은 39세였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골 어느 마을에 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도 6가구나 되었다. 이들은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셨다. 마을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세대주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 속하였고 이들은 마을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마을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마을에서 다문화가정의 존재는 대단히 커 보였다.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동남아 여성들이었고, 이들이 마을에 시집오고서야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부들이 한글이 서툴러 아이들 학교공부를 돌봐줄 수가 없고, 학교준비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하루빨리 다문화가정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해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가족은 산책을 하며 마을 어귀에 도착하였을 때 이상한 현수막 하나를 발

견하였다. 현수막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동남아의 예쁜 여성과 결혼주선! 마음에 드는 동남아 여성을 골라 단 하루 만에 결혼도 가능합니다.” 참으로 기막힌 내용이었다.

“아버지! 저 현수막에 적혀있는 내용은 인권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 저런 내용을 마을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심부에 당당히 걸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께 여쭙어 보았다.

“당연히 인권을 무시하는 내용이고,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뜻 한 내용은 보기가 몹시 불쾌하구나. 어떻게 결혼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겠니? 결혼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심들 하구나.”

아버지도 나와 같이 개탄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열악한 농촌생활을 꺼려 농촌 총각들과 결혼하기를 주저해서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농촌총각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결혼상담소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동남아 여성들을 물건 취급하듯 농촌으로 총각들과 맺어주는 일은 잘못 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저런 문구대로 동남아 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온다면 결혼생활이 행복할까? 나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농촌총각들이 동남아 여성들에게 돈을 지불해서 데리고 온다면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기 힘들 것이다. 자신들이 지불한 돈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상생활에서 멸시하는 것은 물론 구타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마스크를 통해 많이 보아왔다. 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갈등도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현실에 순진한 농촌총각들이 꼬드겨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원하는 결혼소개소의 형태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다. 또 이런 사실이 해외로 알려지면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이

미지는 실추되어 국가브랜드가 추락하고,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교포들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나는 지난 번 베트남 여성이 서울에 와 결혼 한지 7일 만에 숨진 사건이 문득 생각이 난다. 당시 남편은 결혼소개소에 돈을 주고 신부를 맞이하였는데 신부는 남편 될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상담소 측의 말만 믿고 결혼을 결심하였다. 남편은 오랜 동안 정신분열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상태였지만 남편 될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물론 정신적인 문제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둔 부모가 아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적극적으로 나서 결혼을 추진한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우리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았어야 했는데 잘못된 자식 사랑이 자식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빼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 이 결혼의 문제점도 결혼소개소의 지나친 돈벌이 때문이다. 결혼은 결혼소개소가 개입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와 신랑은 딱 한 번 대면하였고, 신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상담소의 허황된 말만 믿고 결혼을 승낙한 것이다. 결혼상담소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가교역할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상담소는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차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 것이다. 신부는 대한민국에 오던 날부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구타를 당하며 두려움에 떨다 결국 7일 만에 남편에게 맞아 사망하는 슬픈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사회는 분노와 함께 우리의 의식수준을 깊이 반성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정부에서는 불법 결혼상담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였고, 사회단체에서는 베트남 신부의 장례절차와 신부 부모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 이제 이런 비극적인 인권침해사건은 우리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국민의 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쳤다.

그런데 아직도 시골 곳곳에서는 결혼을 사고판다는 느낌을 주는 현수막이

마을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퍼진다. 결혼상담소들이 주장하는 방법대로 결혼을 시키게 되면 농촌총각들이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마 단호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농촌총각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에 발생할 수 있다. 결혼상담소의 본래의 취지와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온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회 안정은 가정에서 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농촌 총각들이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결혼상담소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결혼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신부를 맞이하려는 국가의 기본적인 언어와 문화를 미리 익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서로의 건강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신체적으로 속아서 결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강한 신체가 바른 마음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던가? 또한 국가와 사회에서도 따뜻한 관심과 농촌총각들의 눈높이 맞춘 올바른 결혼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의 조건들을 교육해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다민족사회로 변화가 예상된다. 다민족사회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이 가중된 사회는 사회소통이 불가능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된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떳떳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주고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 그들의 꿈을 이루는 날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인권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가져본다. 그리고 이장님께 말씀드려 마을 어귀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현수막이 철거된 마을은 한층 아름답고 정겨운 마을이 되어 가족의 마음을 흐뭇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한 뜻 깊은 여행이었다.

## 중 등 부 우 수

-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진산중학교 선지은
-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영도중학교 신동훈
-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 명제를 기호화 시킬 수 있을까?  
부산 안락중학교 박은빈
- 우리 우정 언제까지 계속될까.  
영훈국제중학교 황소흠
- 인권이 숨 쉬는 학교  
경일중학교 김연주



##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진산중학교 2학년 선지은

오늘은 우리가족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인천의 한 보육원으로 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다. 매달 네 번째 토요일이면 아침 일찍 보육원으로 출발하는데 예전에는 집에 일이 생겨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한 번은 친구들이랑 함께 해결해야 하는 현장체험학습 과제가 있어서 갈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켜서 엄마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 곳에 도착하면 엄마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고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을 하시느라 바쁘시고 언니와 나는 그곳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잔심부름을 주로 하는데 제일 힘든 일 중의 하나가 식사시간에 도와주는 일이다.

그곳에는 손발이 뒤틀리고 입이 돌아가고 말도 못하는 아이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꼼짝도 할 수 없는 친구도 있다.

밥을 먹여주다 보면 손가락의 반은 흘리고 침도 계속해서 닦아줘야 하기 때문에 비위가 약한 나는 저절로 얼굴을 찌뿌려지고 간혹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우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보육원

선생님 얘기를 듣고는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뻔 했었다. 그 뒤부터는 되도록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애쓴다.

우리 반 친구 가운데 한명인 유미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는 통합 수업을 듣다가 가끔 특별반 수업을 받으러 간다. 조금 다른 점도 있지만 나는 그리 특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유미가 우리 반이 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참 많았다고 들었다. 입학 당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모여 유미를 일반 학교인 우리학교에 다니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학교로 보내야 하는지 회의를 했었는데 찬성과 반대로 크게 나뉘어졌다고 한다.

“수업에 방해가 될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할 지 몰라요.”

“아이들이 싫어할지도 모르죠. 따돌림을 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수학교가 더 낫지 않을까요? 비슷한 아이들끼리 함께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지 모르지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고개를 내저으며 힘들다고 얘기하실 때 우리 반 선생님께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이유 잘 압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은 약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시며 다른 선생님들을 설득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유미는 결국 우리 반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나랑 유미는 급식시간에 밥을 같이 먹는다.

보육원에서 유미랑 비슷한 친구들을 많이 봐서인지 이젠 아무렇지도 않지만 친구들은 유미를 피해 멀찌감치 자리를 잡곤 한다. 나는 유미가 밥을 먹을 때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니고 잘 삼키지 못해 음식이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걸 지저분하다고 멀리 피한다면 유미의 기분은 어떨지 늘 생각해본다.

사람은 더불어 같이 살아갈 때 더 아름다운 법이라는 걸 나는 어렵듯이 느끼고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다.

상대방의 외모만 보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큰 장애라고 엄마가 말씀하신 적이 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함께 할수록 따뜻해진다고 한다. 사랑이 더욱 많이 필요한 몸이 불편한 친구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사회, 아무 거리낌 없이 순수하게 두 손 맞잡을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믿는다.

요즘은 뜻하지 않는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지금 건강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갈아갈 수도 있다.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세상사람 모두가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사회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내 친구,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포근히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함께 행복한 사회,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영도중학교 3학년 신동훈

내가 학생인 만큼 나는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나 사회적으로 겪는 불이익을 잘 안다. 실제로 자유를 침해당하거나 차별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반사로 일어난다. 보통 학생들은 늘 성인과 달리 지나친 제한을 받고 살아왔다. 예를 들어서 머리는 왜 내 생각대로 기르거나 변화시킬 수 없나? 왜 굳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생활을 보내야 하나? 학생들은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한이 있을까, 돈이 필요하면 할 수 있지 않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투표인데도 청소년은 왜 할 수 없나? 영화관에 가면 왜 나이제한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

다른 성인들이 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학생과 뭐가 달라서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분명히 차별이라고 볼 수있다.

사회적으로 명백히 약자인 한국의 청소년들, 이들과 성인들의 차이는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은 단지 '나이'이다. 한마디로 나이가 부족하니 이들은 철도 안들고 생각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이다. 이 고정관념은 결국 청소년들을 하나하나 사회밖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제한들에 대해 이런 의문점을

갖는다. 첫번째, 우리 청소년들은 왜 학교에서 마음대로 옷과 머리를 꾸밀 수 없을까? 그에 대한 어른들의 답변은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는 것이다. 왜 하필 학생다운 학생이 되려면 머리와 복장들을 전부 일체화 시켜야 되는 것인가? 개성을 싸그리 무시한 채 군대같이 복장과 머리를 전부 똑같이 하면 무슨 장점이라도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은 학생이라는 형식 때문이다.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변화는 우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학생일 시기에 이것을 키워줘야만 될 것인데, 억압하는 것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만 키우는 셈이 될 것이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서 읽은 것이 생각이 난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다. 그 말뜻은 누구나 쓰게되는 지랄은 양이 정해져 있어 전부 쓰게되면 닳아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놔두자는 것이다. 억압하고 누른다고 청소년들의 열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쌓일 뿐이라는 것이다. 학생인 내가 생각하기에도 일리 있는 말이다.

두번째, 청소년들의 나이를 핑계삼아서 왜 돈을 벌거나 영화, 다양한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 어른들의 답은 결국 너희들은 책임도 없고 공부나 해야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다. 책임감이 없어 돈도 벌 수 없고 공부나 해야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란다. 현대 사회는 취업이 하늘에 별 따기이다. 그만큼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 그만큼 대학에 인원이 몰림에 따라 입시제도가 까다로워 지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놀이와 영화를 즐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공부 공부 공부해라,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에게 고집하는건 공부 뿐이라는 세상의 현실은 학생들을 많이 지치게 만든다. 돈을 벌어서 내가 즐기고 싶다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제한을 만들다 보니 청소년들은 당연히 가져야 할 개인의 자유를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저 공부하고 밥먹고 공부

하고 밥먹는 세월이 일하며 전기나 공급받는 기계와 다를바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엄연히 국민인 우리 청소년들은 왜 투표권이 없을까? 투표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의해서 만 20세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로 학교에서 회장이나 부회장, 학교 임원들을 뽑는 것과 비슷하다. 허나 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는다. 청소년들도 국가의 주인이다. 투표는 일반시민이 사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청소년 때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면 시민의식이 높아 지지 않을까? 하는 나의 생각이다.

정리하자면 청소년들은 말과 글,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청소년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들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은 개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에게는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 받아야 한다. 그들이 일을 하고 싶다면 일을 시켜줄 권리가 있으며 돈을 번다면 청소년들은 일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더 할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해 당당히 청소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저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차별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 명제를 기호화 시킬 수 있을까?

부산 안락중학교 3학년 박은빈

인권은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 문장을 수학적으로 바꾸어 보면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하라는 명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 명제를 기호화시키기 전에 먼저 명제가 거짓인지 참인지 증명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 명제를 증명하는 데 역, 이, 대우를 이용해보려고 한다. 먼저 명제의 역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명제의 이는 “어떤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이고 명제의 대우는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3가지의 성질을 이용해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명제를 본격적으로 증명해 볼 것이다.

첫째, 명제의 역을 먼저 이용해보자. 이 명제의 역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럼 역에 반증사례가 있는 지 살펴보자. 예를 들면, 오늘 신상제품이 나왔고 가정하자. 그 제품을 사기 위해 필사적으로 용돈을 아꼈다. 그 결과 제품을 살 수 있을 만큼 모아졌고 그것을 가려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가 그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말 “어머니는 참견하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내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모은 돈이다. 그러니 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품을 살 건지 말 것인지의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나다.”라는 말을 한다. 이 말 속에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와 물건으로 인해 남들과 같이 무엇을 사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나’라는 궁극적 인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나라는 존재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 권리는 인권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라는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알아야 하는 건 이런 나라는 존재가 수 없이 많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4천 5백만 명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 모두 자유를 가지길 원하고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4천 5백만 명 안에는 우리를 포함하여 장애우분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포함되어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아라 당신이 남의 권리를 빼앗을 조건이 되어있는 가? 조건도 안 되며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빼앗길 수도 없고 존중되길 않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이 사례를 통해 명제의 역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명제의 이를 한 번 증명해보자. 이 명제의 이는 ‘어떤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이다. 이 명제의 이 역시 반증사례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방금 전 역에서 증명한 사실이 있다. ‘인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참이다. 즉 모든 사람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데 어떤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눈에 보아도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역이 참이면 이 역시 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서나 ‘예외’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역은 참이라고 증명되어 있지만 명제의 이에 반증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분석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럼 다음 사례를 보자. 지난 1월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풋내기 중학생이었다. 이

소녀가 사는 곳은 일명 사회적 약자들이 사는 1번가와 다름없는 곳이다. 이 사건은 많은 사회적 이슈를 낳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이슈는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작은 생명이 죽을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냐는 것과 두 번째는 가해자의 인권 존재의 유(有), 무(無)이다. 첫 번째 여론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는 더 많은 보살핌과 복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일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빨리 해결할 수 있게 ‘경찰’을 지방마다 배치한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는 큰 어려움이 많으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 대상보호자를 보살피지 않았던 결과 어린 생명 하나가 죽게 되었다. 경찰 뿐 만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말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 어쩌니 하면서 실상 그들을 위해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배려하는 척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을 소외하였다. 그렇게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린 소녀가 죽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록 이 소녀가 죽었지만 그녀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또한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는 어떤가? 방금 언급했던 피해자 소녀의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의 간다. 일단 그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에게 생명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녀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다. 그럼 가해자의 인권은? 가해자는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가해자도 사람이니 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지 않고 있는 건가?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많은 tv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했고 일명 “가해자의 사형”을 두고 찬반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 그럼 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 모든 사람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

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가? 가해자도 인간이다. 따라서 그는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을 위해 정부는 그들을 보호야 하며 실제로 정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 보호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권은 보장 받아야한다. 이렇게 가해자의 인권을 두고 그의 인권을 빼앗아야 한다. 아니면 그의 인권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두고 대립을 하였지만 결국 가해자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사건은 단락되었다. 다시 본문제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명제의 이는 거짓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인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증사례를 보면 결국 피해자는 죽었고 가해자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를 보고 해석하면 인권을 가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명제의 이가 참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즉,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을 죽인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옹호를 해주며 피해자에게도 비록 죽었으나 인권이 소중하니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여론과 정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보았을 때 이는 분명히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명제의 이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 명제의 이는 참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우명제,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것은 방금 언급한 명제의 이의 반증사례와 비슷하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생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권이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약 10.7%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맞는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홀히 되고 있다. 소홀히 되는 노인분을 위한 복지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문화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사회단체도 있지만 정작 노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노인분들은 무관심과 외로움에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한다.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권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연세가 많은 적든 권리를 활용할 공간이 없으면 인권을 가진 것이 의미가 없다.

다른 사례는 항상 인권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나오는 것, 바로 안락사 문제이다. 식물인간이 되면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주된 발작으로 보는 이를 괴롭게 한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환자를 위해서 안락사를 결정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생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권이 위협당하는 사람이다. 아직 살아 있다. 비록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살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안락사를 결정하는 순간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이처럼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기본권인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으면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생명이 유지 되어야만 인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우명제는 참이다.

내가 제시한 명제의 역(인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어떤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우(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를 조합해보면 역과 대우명제는 참, 이는 거짓이다. 수학적으로 판단하면 '대우 명제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다.'가 성립된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이 명제는 분명 참이다. 이렇게 명제가 참인 것이 밝혀졌다. 우리가

명제를 증명하면서 사용한 방법이 생각나는 가? 바로 반증사례를 들어보는 것이었다. 이론에서는 반증사례가 많으면 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반증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이것이 분명히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반증사례를 내세워 증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 왜 반증사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가? 분명 원칙대로라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명제가 참임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보다 반증사례인 즉,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다. 본래적인 가치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분명 모든 사람이 반증사례를 꺼내어 증명을 한다.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증명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머리 안에는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명제가 들어있다. 이 문장은 본능적인 것이며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분석하고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이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없고 명제가 될 수 없으면 수학적으로 기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모든 사람  $\supset$  인권이라는 기호화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두 존중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본래적 가치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 내 자신의 인권을 조금씩 줄여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우정 언제까지 계속될까

영훈국제중학교 2학년 황소흙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학교 가는 시간에 일어났다. 남구로역에 있는 복지관에 봉사를 하러 가야했기 때문이다. 남구로역은 7호선의 거의 종점에 있었다. 들어보지도 못 한 곳이었고, 우리 집에서도 멀었다. 한 시간 반에 걸쳐 드디어 남구로역에 도착했을 때, 내가 가려는 복지관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9시까지 가야했고, 남구로역에 8시 반에 도착을 하였지만, 약 1시간 가까이 복지관을 찾지를 못했다. 남구로역은 우리나라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 같았다. 곳곳에 중국어가 써져 있었고, 중국 음식점도 엄청 많았다.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핸드폰 가게에 “핸드폰”이라고 중국어로 쓰여진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1시간가량 땀을 뻘뻘 흘려가며 찾은 복지관은 꽤 멀었다. 지하철역에서도 떨어진 구석까지 들어가야 있었다. 언덕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며 찾은 복지관에 갔을 때는 장애우들을 만날 생각에 힘들었지만 힘이 났다. 사실 매년 봉사를 하면 내가 도와주러 간 것이지만, 그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오게 된다.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올라가서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요,”라고 말하였다. 그 사무실 언니는 “오늘 중학생 봉사활동이 있어?”라며 대화를 하셨다. 대화를 한 다음, 나를 쳐다보며, “아, 그 국제중? 1층으로

내려가.”라며 조금 언짢게 대답을 해주셨다.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에 담당 선생님이 계셨다. 그 담당선생님께서 계신 방 안에는 장애우 약 20명 정도가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책상에 앉아서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내가 예상한 봉사와는 너무나 달랐다. 장애우들이 불편한 것을 도와 주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말이다. 그 선생님은 나에게 “여기 빨리 동그라미 쳐져있는 것만 채워 넣어.”라고 하시고, 나는 곧장 내 이름, 학교, 전화번호 등을 썼다. 원래 봉사를 가면 사전교육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 봉사는 사전교육도 없었다. 그다음 “너, 너는 여기 앉아. 앉으면 옆에서 다 알려 줄 꺼야.”라며 자리를 안내해주셨다.

장애우들은 모두 앉아서 쇼핑백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가 외국을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을 담아 주는 조금 단단한 봉투를 만들고 있었다. 옆의 박스들 보니 대한항공이라고도 써져 있었고, 내가 간 날은 아시아나 봉투를 만들고 있었다. 그 장애우들은 모두들 환하게 웃고 인사해주었다. 조금 말투가 서툴렀지만, “안녕하세요!”라고. 나도 환하게 인사해주었다. 내 옆에 앉은 장애우 친구는 나에게 봉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알고보면 쉬운 것이었지만, 처음하는 것이라서 힘들었다. 봉투는 손잡이 부분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안에 딱딱한 종이를 넣고, 플라스틱 손잡이를 끼워 넣어야 했다. 두 손잡이는 앞과 뒤를 신경 쓰며 정확하게 맞도록 끼워넣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봉투의 모양도 단정하게 잡아주고, 바닥에 종이를 또 넣어야 했다.

내가 서툴지만 첫 봉투를 완성하였을 때,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주었던 장애우 친구에게 제대로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내 대각선에 있던 다른 장애우 친구는 화를 내며, 나를 가르쳐준 장애우 친구에게 화를 냈다. “너가 똑바로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러잖아. 헤인아, 똑바로 좀 가르쳐! 똑바로 좀!”

이라고 했다. 내가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자꾸 내 대각선에 있던 장애인 친구는 불량품이라며, 헤인이라는 장애인 친구에게 화를 냈다. 두 번째를 만들어도, 세 번째를 만들어도 계속 지적을 하였다. 만족하지 못하며 헤인이에게 화를 내는것이 더 심해져 갔다. 나는 답답하였다. 최대한 잘 만들도록 노력하였지만,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마침내 헤인이가 물어봤다. “뭐가 문제예요?” 그 장애인 친구는 “이게 단단하지 않잖아. 너는 지금 몇 번째인데 이것도 모르냐?” 라며 또 화를 냈다. 나는 그 대각선에 있던 장애인 친구가 조금 예민한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봉투를 만드는데 열중했다.

한 15분 정도 지나니, 그 장애인 친구들은 봉투를 만들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꽃이 피웠다. 어설프게 말하더라도 서로의 말에 좋아하며 박수도 쳤다. 그러자 곧 감독을 하던 남자 선생님께서 “너희들 봉투 다 만들었어? 조용히 안 해? 지금 10시인데, 12시까지 그 3개 박스 다 채우지 않으면 점심 못 먹어!”라고 했다. 박스 하나에 봉투가 적어도 150개는 들어갈 것 같았다. 나는 겨우 3개를 만들자 현기증이 났는데, 150개 3박스를 채우려 하니 정말 아찔했다. 분위기는 다시 조용해졌고, 봉투 만드는데 모두 열중하였다.

1시간 반이 지나 쉬는시간이었다. 나는 처음 봉투를 만드느라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쉬고 있었다. 곧 경은이라는 장애인 친구가 나에게 다가왔다. 또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했다. 나도 다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그 친구는 내 시계를 보며, “어, 시, 시계 예쁘다.” 라고 했다. 사실 경은이는 말이 그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서툴러서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최대한 티를 안내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나에게 핸드폰을 내밀며 “어제 새로 샀다.”라고 자랑하였다. 자신의 집이 남구로역과 영등포역 사이에 있다며 핸드폰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 핸드폰 엄청 예쁘네요~ 저는 압구정역에 살아요. 여기서 조금 멀죠?”라며 맛장구를 쳐주었다.

곧 쉬는 시간이 끝나자 다시 지루하게 봉투를 만들기 시작했다. 잠시후 그 지도교사 선생님이 다시 봉투 두 개를 들고 들어오셨다. “이 불량품 누가 했어. 너희 불량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누가 이거 한 번 접지 않고 그냥 쫓으래? 이거 너희들이야 아니면 봉사자가 그런거야?”라며 무섭게 협박을 하듯이 이야기 하셨다. 그러더니 어느 장애우를 지목하며, “야! 이거 니가 고쳐!”라고 강하게 소리쳤다. 정말 무서웠고, 내 대각선에 있던 장애우 친구가 왜 그렇게 내 것이 불량품이라며 몇 번이고 다시 만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 담당 선생님께서는 불량품을 다시 만들라고 말하시고, 장애우들이 모두 복지관 조끼를 입었는지 확인하러 다녔다. “야! 너 왜 조끼 안 입어. 빨리 입어.”라며 뭐라 하시던 도중, 어느 장애우가 “저, 저, 저 조끼가 없어, 없어졌어요.”라며 머뭇머뭇 말하며 별떡 일어나서 이곳 저 곳을 다 찾아보았다. 그 담당선생님은 “나한테 조끼 잊어버렸다고 하면 내가 찾아 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찾아! 어디 간 거야!”라며 또 화를 내셨다. 도대체 그 담당 선생님은 왜 그렇게 장애우들을 구박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고, 이런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람 맞나 라는 의심도 들었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만큼 더 잘 알 것이고, 장애우들을 더 이해를 잘 할 텐데 말이다. 결국 그 조끼를 잃어버린 장애우는 어쩔 줄 못하며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조끼를 못 찾은 채로 말이다.

드디어 12시가 되었고, 나는 이제 끝날 시간이었다. 2시간 반 동안 봉투를 만들고 있었는데, 정말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다. 손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렇게 힘든 작업을 그들은 몇 년째 하고 있었다. 그 불친절한 지도 교사들 밑에서, 불량품이 나올 때 마다 협박을 들으며, 무서움에 그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었던 말이다. 조금이라도 잘못 만들면 선생님들에게 구박을 받았고, 무엇을 잊어버려도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였다.

복지관이라면 장애우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장애우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평소 생각을 했었다. 그렇지만 내가 경험하고 실제로 본 현실은 달랐다.

장애우들이 일반 사회에 나오면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복지관 같은 기관들을 만들어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관들은 장애우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하지도 않고, 돌보아 주고 감싸주기는커녕 그저 노동자로만 볼 뿐이었다.

우리는 상대방이 옷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보시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숙제 양을 갑자기 늘려주시지는 않는다. 우리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우들은 아예 우리 사회의 인격체도 아니라는 것인가?

인권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냥한 태도,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면 장애우들은 행복해 할 것이다.

봉사활동에서 한 장애우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너는 천년만년 나랑 살겠다는 약속했으면서 왜 나랑 같이 안다녀?~”

“아, 맞다. 우리 천년만년 같이 영원히 살꺼지?”

둘 사이의 우정보다도 시급한 것은 그들의 인권이다. 그들의 인권은 과연 천년만년 영원히 갈 것인가.

## 인권·1 숨 쉬는 학교

경일중학교 2학년 김연주

“연주야, 너 이상한 조끼 입고 다니지 마!”

지난 봄, 때늦은 폭설이 내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교복 위에 녹색 패딩 조끼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조끼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으로 선정되면서 받은 단체 패딩조끼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녹색 패딩 조끼를 이상한 조끼라면서 못 입게 하셨습니다. 학교 교칙에는 분명히 ‘원색’이나 ‘형광색’ 외투는 못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은 원색이 아니라 노랑과 파랑이 섞여서 만들어진 중간색입니다. 원색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색깔 없는 또는 검은 색 옷만 입으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개성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복이 아닌 외투의 색깔까지 규제하면서 학생들을 틀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창의성 교육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도 분명히 역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친구들 중에는 두발 자율화를 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특히 대구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는 오빠는 두발은 물론이고 교복까지도 자율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교복이 지정된

학교들에 비해서 이른 바 사고(?)를 치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한 복장으로 학교를 다니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서, 다른 학교에 비해 학력이 더 우수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복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규정만을 강화시켜서 복학생이 아예 우리 학교로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정말 교육적인 것일까요? 저는 복학생들이 오히려 그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여 참된 길,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더욱 훌륭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954년에 개교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 이미지에도 더욱 좋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학교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저희 세대들의 마음을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더 이해해주시면 안될까요?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는 과정에 있고 또 학생신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개성을 무시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원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거나 파마를 하고, 연예인처럼 화려한 외투를 입는 것은 규제를 하더라도 평범한 외투의 색깔까지 규제하는 것은 분명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잦은 시험, 이성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규제와 제한으로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준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고, 그 결과 선생님들께서도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입니다. 지난 겨울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이 교복을 찢거나 속옷 바람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등 이상한 뒤풀이 행위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평소 복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졸업식 후 그런 뒤풀이 행위를 유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만 명당 27명이 자살로 사망하여, OECD 국가 가운데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모두 202명으로 2008년과 비교했을 경우 무려 47%나 급증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불화 등의 온갖 스트레스로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도 '다 그래'를 뒤집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패딩조끼는 그냥 녹색 패딩조끼일 뿐 아무런 죄가 없고 또 녹색 패딩조끼를 입었다고 죄인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다른 색안경을 끼고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각자의 서로 다른 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발랄한 꿈과 희망을 갖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개성과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교권이 확립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당연히 개성과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주시고 믿어주시면 안될까요?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만은 않으니깐요.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제한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우는 학생이기에 더욱 잘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인권을 존중받고 자란 사람이 남의 인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저마다의 개성과 소질을 키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즐겁게 맘껏 뛰놀 수 있는 꿈동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정말 무슨 수도원이나 수녀원은 아니잖아요...

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 65.7%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아직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군대, 복지원 등 다수인보호시설, 경찰, 검찰, 학교, 구금시설 등이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도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으로 나타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녹색 패딩조끼를 입고 학교에 갔던 그날, 선생님으로부터 조끼가 참 잘 어울린다는 칭찬의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경일중 학교 학생인 것이 자랑스럽고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인 것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인권이 숨 쉬는 학교! 함께 만들어 가요!’



## 중 등 부 장 려

- 진정한 여성의 역할  
하안북중학교 황연경
-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양성평등 운동'  
대구 천내중학교 전규혁
- 나와 조금 다를 뿐이에요  
대구 천내중학교 심주연
-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나요?  
대구 천내중학교 이가은
- 학생 인권  
웅상중학교 이재현
- 다문화 가정에 따뜻한 관심을  
광주 동아여자중학교 선한나
- 내가 만나 뵈 장애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생각  
매홀중학교 김효경
- 인권문제, 사회를 탓하다  
부원중학교 이상현



## 진정한 여성의 역할

하안북중학교 3학년 황연경

우리나라는 예부터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가 발달했다. 더군다나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 때는 더욱 심했다. 모든 사회활동이나 중요한 결정 등은 거의 남자들이 했고 여자는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속담처럼 여성은 자신의 날개를 감추고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달에 발달을 거듭해 나가면서 인권이 생겨나고 여성의 권리가 조금씩 존중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시대 진정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헨디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보면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몸부림쳐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좋은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노라가 살았던 당시의 노르웨이에서는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던 시대이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은 전부 남자의 역할이 되었고 예전의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권리는 거의 없는 가부장적 중심의 사회였다. 노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릴 때는 아버지 밑에서 인형 같은 아이로 살아왔고, 커서는 헬메르의 인형같은 아이로 살아 왔다. 그러나 노라는 크로그스타가 자신이 남편을 위해 돈을 빌렸던 것을 헬메르에게 알리면서 자신보다는 권위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남편의 모

습을 보게 된다. 그때까지 노라는 행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의 틀에서 벗어나 자아 정체성과 스스로의 독립을 찾기 위해 가출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노라의 가출은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점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도전과 여성의 권리회복 등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헬메르는 은행장으로 승진하여 이제 꽤 넉넉한 집안이 되었었다. 그 덕분에 노라는 하녀도 있고 사고 싶은 물건도 맘껏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권리와 여성의 행복을 찾으려 그 모든 여유로운 생활을 버리고 가출을 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여성의 힘으로 돈을 벌거나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라에겐 나간 후에도 넘어야 할 벽은 매우 많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라고 무시당하고 경제활동도 못할 뿐더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노라는 이런 어려움들을 알면서도 사회의 다른 여성들처럼 그저 남자들의 인형처럼 사는 삶이 아닌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기 위해 세상에 홀로 부딪혔던 것이다. 이러한 노라의 모습은 우리시대 여성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화상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아지는 사회제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는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를 들면, 극심한 경제난속에서 정리하고 1순위는 기혼여성이 목표가 되어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육아와 가사 대부분을 여자의 몫으로 감당한다든지, 여성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상한 오해와 편견을 갖는 등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인권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당시의 노라의 용감했던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러가지 모습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 홀로 사회에 맞서 도전하는 용기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지금의 여성들도 닮아야 할 필요가 있다.

18년간을 맞벌이 하시는 나의 엄마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두를 도맡아 일하시며 너무나 힘겨운 생활을 하고 계신다. 마치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하며 일하시는 엄마 모습 속에서 한국 사회의 일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 인식을 생각해 보게 된다. 당당하게 일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가정생활을 병행해서 직장생활도 잘 해나가며 불평 없이 일해야 하는 로봇트로 취급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비단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정에서 일하는 기혼여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이 또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권리 인식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 제도를 확충해 가정생활의 짐을 덜어 주고 여성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다양하게 만들어 사회의 약자로서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발전될 때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에 대한 인식은 넓어져 여성을 진정한 사회적 개체로서 받아들여 질 것이다. 또한, 현대여성들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당시 노라의 용감했던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러가지 모습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 홀로 사회에 맞서 도전하는 용기와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지금의 여성들도 닮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진취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한다면 이 시대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인 나 또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아 여성의 권리를 적극 실현할 수 있는 그날이 오

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우리는 쉬이 듣고 도 듣는다. ‘인형의 집’의 노라 역시 여자이면서 어머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심했을 모습이 빛이 났다.

나는 오늘 조용히 외치고 싶다.

*깨어나라!*

*여성들이여!*

*그대들만의 자아와 권리를 찾아라!*

##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양성평등 운동’

대구 천내중학교 3학년 전규혁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가 드세다, 첫 손님이 여자면 그날은 재수가 없다, 여자와 북어는 사흘 걸러 때려야 한다.’ 등의 불평등한 굴레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생을 살아왔다. 우리나라 남성들 또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과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된다’는 식의 감정적인 억압을 받으면서 자라고 살아왔다.

우리는 성에 따른 가치관과 행동, 말에 대한 고정관념을 주입받으며 살아왔고, 거기에 맞춰 알맞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성에 따른 고정관념과 그에 따른 성차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삶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들게 된다.

고정된 남녀차별 의식에 따른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여성평등운동, 페미니즘(Feminism)운동, 여성상위운동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양성평등 운동’이 새로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양성평등이란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모두 존중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노력하자는 뜻으로 보여 진다. 남녀차별이 많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성평등은 시급히 이루

어제야할 사항이다.

그러면 이러한 남녀차별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오랜 농경사회가 지속되면서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더욱 강하게 발달되는 남성이 밭일, 농사일 등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하기 시작하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남성 중심의 생활관습이 고착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여성의 지위 하락과 남녀차별이 심화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이다. 조선 후기에는 재산 상속에서도 장남 우대, 남녀 차별이 강화되었다. 또한 여성은 가족 안에서 열등한 예속적 존재가 되었고 시집을 가면 동시에 남편의 종속적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보다 활동이 자유로워진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어진 것일까?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여성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아직까지 뿌리 깊은 농경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와 관습, 남성들의 의식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왔어도 남녀차별이 잘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문제들로부터 남녀가 평등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입사심사에서 남성은 능력별로 선발이 되는데 반해, 여성은 외모 순으로 선발되는 예가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가장 큰 수치 중 하나일 것이다. 일단 취직을 해도 결혼 후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도록 회사에서 은밀히 종용하는 경우도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또 1996년 전까지만 해도 육·해·공 사관학교와 같은 곳은 여성은 입학 자격조차 없었다. 이러한 직업에서의 차별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의식 속에 굳어진 '여자는 힘들고 난폭한 일은 할 수 없다, 집안일이나 잘할 것이지'라는 근거 없는 생각 때문에 여성은 교육받을 기회와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되

었던 것이다.

예전에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었던 정책 중 하나는 '호주 제도의 존폐'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호주 제도를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기고 이를 폐지하면 가족이 붕괴된다는 논리로 밀어붙이는 자들과 집안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 등의 모든 것의 계승 1순위는 아들로 지정되고 어머니와 딸은 2순위, 주변적 존재가 되므로 양성평등의식에 어긋난다는 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결했다.

결국 정부는 호주 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지금까지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제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가족이라고 정의했는데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과 함께 그동안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등도 모두 법적인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게 법으로 지정해 두었다.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도 이전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라는 역할 분담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황에 맞게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

나는 인간극장 중 '새댁이 된 김서방'편에서 남편과 아내가 협의 하에 아내의 직장에 다니고 남편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기를 돌보는 것을 보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역할을 역지로 떠맡아 부부 간의 갈등을 형성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등을 상의와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합리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가족 품에서 자란 자녀들은 분명 성인이 되어서도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없이 자신의 부모의 모습처럼 남녀차별 의식이 없는 부부생활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남성들이 주장하는 '역차별' 문제이다.

여성은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남성은 만 19세만 되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만하냐는 아우성이 빗발치는 남성군대입대문제에서부터 몇몇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게 체육점수 가산점 5점을 주는 행위와 남성이면 열심히 노력해도 미술선생님들의 ‘여성이 남성보다 그림을 더욱 잘 그릴 것이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보다 점수를 적게 받는 등의 수행평가의 차별 대우까지 남성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남간호사를 무시하고 기피하는 행동과, 남성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안일을 하거나 아기를 돌보면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사내대장부가 사회에 나가야지 이려고 있으면 쓰나.’라는 성차별적 발언과 주위의 좋지 않은 시선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또 한가지의 흥미로운 예로는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 비용은 보통 여성이 아닌 남성이 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남성은 대체로 ‘남성이 내야 부끄럽지 않다.’, ‘남성이 내지 않으면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인다.’라고 답하였고, 여성은 ‘당연히 남자가 내야지, 안내면 부끄럽지 않아?’라는 당연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요즘은 여성의 복지를 위해 설치된 정부기관인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예로 우리는 개그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인 남성인권보장위원회를 들 수 있다. 남성인권보장위원회, 줄여서 남보원에서는 남성이 내는 데이트 비용,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가방이나 신발 등을 사주고 비참하게 차여버리는 여러 가지 현재 사회의 역차별 문제를 재미있게 승화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역차별 문제를 비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남성들도 불만이 많은데에 비해 아직까지 남성에 대한 법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는 남성들이 있다 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 변화는 단지 여성 쪽에서 열렬히 원한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 자체가 변해야 하며, 그에 따라 모든 남성과 여성의 의식이 변화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무엇보다 남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젠 더 이상 ‘가부장적인 문화를 개선하자’는 구호는 ‘양성평등’을 외치는 우리의 심정을 표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일단 남성과 여성의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 나는 ‘남(여)성이니까 ~해야 해 또는 ~하지 않아도 돼.’라는 편견의 울타리와 틀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맞춰 스스로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함은 물론이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이 각자의 개성을 지닌 특별한 인격체로 스스로를 인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남자와 여자는 모두 다 같은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며칠 동안이라도 서로의 일을 바꿔서 해보는 것도 남녀차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차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해준다면 ‘남자가 무슨 저런 일을 해?’, ‘여자가 얌전할 것이지.’ 이런 말들 보다는 ‘남자가 저 일 하니까 참 멋있어 보인다.’, ‘여자가 활발해서 좋다’ 등 이런 말이 나오도록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평등이 개선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로는 이슬람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베나지르 부토 일과 학교에서의 강사초청으로 남녀차별을 줄일 수 있게 된 학생들, 여러 가지 남녀평등 박람회, 축제 등이 있다.

남녀는 결코 차별할 존재가 아니다. 남녀는 서로 돕고 하나의 인류로써 양보해 주어야하는 존재이다. 남녀는 결코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다. 한사람은 세심하고 꼼꼼하다. 하지만 또 한사람은 덜렁대고 대범한 성격이다. 이렇게 둘은 단순히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격과 생각 등의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남녀도 이렇게 여러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차이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다 보면 언젠가는 '페미니즘'이니 '양성평등'이니 하는 말조차 필요 없어지는 어느 미래의 시간이 되어,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또는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없이 모두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와 조금 다를 뿐·이에요

대구 천내중학교 2학년 심주연

선생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 내용은 작가의 눈으로 꼼꼼히 걸러낸 다양한 차별의 모습을 유쾌하게 때론 가슴 아프게 그려냈더군요.

인권문제! 잘 알아차릴 수도 없는 차별을 날카롭게 포착해 강편치를 날리기도 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익숙하기까지 한 차별을 눈 밝게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몇 작품 중에, ‘첫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불편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맨 처음 소녀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힐끔힐끔 쳐다보는 동정하는 듯 한 눈초리……. 그것은 고스란히 소녀의 가슴에 꽂혀서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쉬이 잊어버린다. 지금 무섭고 불편한 것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버티가는 나날이다. 눈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세상의 온갖 장애물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나에게 하루하루는 장애물 경주이다.

소녀는 이렇게 다짐하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잠시 일 뿐, 학교 가는 길부터 소녀의 순탄하지 않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없는 지하도 계단 앞에서 머뭇거리야 하나……. 다른 사람들도 쉬지 않고 오르면 숨이 차는, 이 끝없는 계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저만치 교문이 보이면 결승선에 골인하는 마라톤선수처럼 활짝거리던 가슴이 좌악 퍼집니다. 불편함은 어디 그 뿐일까요? 체육시간마다 텅 빈 교실에 남아 친구들이 벗어둔 옷가지를 쳐다볼 때면 소녀는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 왔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진 유리창, 그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대고 소녀가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화장실 사용은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휠체어에서 내려 간신히 일어서서 변기까지 걸어 가야 할 때면 타일 벽을 짚고 한걸음, 한걸음 땀이 옷에 흠뻑 스며듭니다. 그러나 드디어 소녀가 두려워하던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발을 헛디뎠다 미끄러진 것입니다. 바지가 오줌으로 흥건히 젖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의 앞에서 쓰러져 있는 소녀의 모습……. 소녀의 마음은 죽고 싶도록 비참하였을 것입니다. 소녀는 생각합니다. 무성한 나무 저편 잿빛 하늘로 배가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그래, 나의 답답한 마음은 친구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친구의 도움이 아니면 화장실도 못 가는 부자유스러움에 있다. 이 부자유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소녀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느 날, 소녀는 큰마음을 먹고 교무실에 찾아가서 교무주임 선생님과 이

야기를 합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소녀의 말을 듣고 교무주임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을 모르는 게 아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 하나를 위한 부대시설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예산을 축내야 한단 말이야. 정 불편하면 시설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가든가…….

선생님은 답답한 듯 도수 높은 안경을 만지시며 상담일지를 덮었습니다. 안경이 없었다면, 선생님도 안개 같은 세상을 해맷을지 모른다고 소녀는 생각합니다.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째, 교무주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고민이 해결되지 않자 소녀의 마음은 불빛 없는 기다란 터널을 지나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듯이 소녀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으려나 봅니다. 친구들이 마음을 합쳐서 학교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친구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조회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의 종소리는 소녀에게 의미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교무실 쪽 현관문으로 선생님들이 나타나자 소녀와 소녀의 친구들의 심장엔 고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2학년 학생들, 가슴에 단 게 뭐야?”

2학년 학생들은 “해연이가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명찰을 만들어 가슴에 달았던 것입니다. 소녀는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에 쉽게 고개를 돌려 버리지 않기…….

나는 이렇게 사회로 새로운 한발을 내딛게 될 거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작품처럼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 어느 한 쪽에는 어둡고 희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

람들은 이상한 동물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와 아주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끔찍스럽게 여기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반기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차이를 찾으려고 애쓰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기와 같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이중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한 마디로, 남에 비해 자기가 우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인간의 저급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이런 속성은 필연적으로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성에 눈뜬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문화를 만날 때 서로의 장점을 주고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성숙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성에 눈뜨지 못한 인간의 자기완성이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스스로 우월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애씁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내일도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점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려고 남과 끊임없이 견주는 것입니다. 자기 성숙을 위해 내면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에게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게 해주는 것은 그의 소유물이며, 그가 속한 집단입니다. 소유물과 소속집단은 인간 내면의 가치나 이성의 성숙과는 무관하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인간의 내면적 가치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합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했지만, 그 말이 오늘날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 사람들의 곳간에 재물이 차있는 게 분명한데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 여유 있는 인심을 보이기는커녕 더 야박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하나의 요인일까요? 아마 경쟁의식이 더 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 이렇다 할 학벌이 없고 내세울 집안이 없고 ‘뺨’없는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외

국민 이주노동자는 손쉬운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비장애인, 남성, 이성애자, 내국인들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희생양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급한 정치인들은 이 점을 이용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애씁니다. 소유물에 집착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구별 짓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은 항상 옳거나 정상이고 남이 속한 집단은 항상 그르며 비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그런 타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틀린’ 타자는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추방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수와 강자의 집단은 자기 집단의 우월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남에게 강요하기 위해 힘의 논리를 동원합니다. 집단적 차별은 아주 쉽게 인권침해를 불러 오는 것이지요.

가령, 동성애자는 사회에 따라 그 비율이 4~12%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수파인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은 ‘비정상’이라고 비난합니다. 무릇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음에도 동성애자들은 소수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왕따’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부정하라는 사회적 폭력 앞에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어이, 한 달에 얼마 벌어?”라고 거리낌 없이 반말을 건네는 내국인들에겐 분명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놓을 장점이 없는 사람일수록 우월한 집단에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 바, 여기에 인종적 편견이 번질 위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상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우월감은 백인들에 대한 비굴한 태도와 동정의 양면을 이룹니다. 실제로 제 3세계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표시하는 사람일수록 비굴할 정도로 백인들을 선망합니다. 이주노동자들

에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은근한 친근감을 드러내는 척하는 게 고작이지만 백인에게는 받는 것도 없이 간까지 꺼내줄 양 친절을 베풁니다. 그러한 점은 미국에게는 마냥 ‘바치기’를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반면, 굽주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퍼주기’라고 떠들어대는 것에 부화뇌동하는 모습과 상통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근본주의는 나와 다른 남을 ‘다른 그대’로 용인 하라는 퓌레랑스 사상이 유럽 땅에서 생겨난 것은 16세기에 같은 하나님의 자식이면서 신, 구교로 갈라져 서로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인간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에 같은 민족이면서 사상과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잔인하게 죽였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아직도 상대방을 탓하거나 냉전 상황을 탓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아직 부족하여, 나와 다른 사상, 나와 다른 신앙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기꺼이 동의해 왔습니다. 이 사회에서 차이는 차별의 징검다리 없이 곧바로 인권침해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권에 대해 좀 더 가까워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차별과 차이를 가려 낼 줄 아는 인권의 감수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수성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지독한 편견과 굳어버린 습관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날이 오기를 꿈꾸어 봅니다.

##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나요?

천내중학교 2학년 이가은

드르륵, 드르륵. 이른 아침부터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음. 아이들은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을 이른 시각부터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기계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손을 움직이는 사람. 그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이 곳에 오면 집안 형편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두려움도 모두 떨쳐내고, 낯선 이곳,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가 이 곳에 처음으로 들어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렇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집안 형편이었다. 공장의 사장이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월급을 좀처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며 ‘우리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 이런 취급을 받는다.’ 라는 것을 느꼈다. 가족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땅인 한국으로 온 그는 공장 사장에게 묻고 싶었다.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나요?”

이런 그들에게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들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가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다름’에 대해

잘 이해 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런 시선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희망을 안고 온 그들에게 그 희망에 대한 물질적인 것, 즉, 돈을 선물해주는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사람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잠도 오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한다는 처지가, 그들이 이런 나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화가 나고 슬플 것이다.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조금만 해도 토라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신도 남을 무시하면서 과연 다른 사람에게 대우 받기를 원할 수 있을까? 아니,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자. “네, 얼마든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오늘 그녀는 모처럼 밖을 나섰다. 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아직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조금은 무섭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온 그녀였다. 집에서 나와 문을 잠그고, 이제는 큰 길까지 나왔다.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위로 삐죽 솟아있는 인도.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다.

오늘은 기분 좋게 할 일을 마치고 싶었고, 웬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찢찢매는 그녀다. 한 남자가 그런 그녀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도와주고는 불쌍하다는 듯 혀를 차며 간다. 항상 겪는 일이지만,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들며, 속에서 눈물이 울컥하고 치솟는다. 나는 그런 시선을 받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세상에게 물었다. ‘나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니?’라고 말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볼 때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심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꺼리거나 싫어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데.’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상상 그 이상이다. 한 번 좁은 이런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다.

1학년 때, 도덕시간에 눈을 가리고 한 친구를 찾아가는 간단한 체험을 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안대를 쓰고 있는 동안 너무 답답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짜증도 났다. 또, ‘내가 만약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니 무섭기까지 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체험만으로도 이렇게 답답한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일까.

우리는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우리와 다른 점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는 것뿐인데, ‘색안경’까지 끼고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제발 그 ‘색안경’을 벗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자신감을 잃은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자, 이제 그녀의 물음에 대답해주어야 할 시간이다. “물론!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한 학교의 쉬는 시간. 지루한 수업에 축 늘어져 있는 아이들이 종이 치자마자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복도에서 시끌벅적 떠들기 시작한다. 그런 아이들 틈에서 홀로 복도를 서성이는 한 여자아이. 무엇인가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자세히 본 그 소녀는 이국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인 혼혈아였던 것이다.

소녀는 오늘도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자신을 놀릴까 두려웠던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소녀에게 와 소녀

를 놀리기 시작했다. ‘눈 색깔이 왜 그러느냐’, ‘또 선생님한테 가서 울면서 일러라.’, ‘왜 하필 우리학교에 왔느냐’ 이런 말들. 소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뿐이었다. 매일 듣는 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말, 그래서 소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들을 때마다 상처로 남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소녀는 울면서 속으로 그 아이들에게 물었다. ‘왜 나는 너희와 같은 위치에서 인정받을 수 없니?’

소녀는 혼혈아이다. 하지만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소녀’이다. 아이들은 소녀를 받아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다. 다른 눈 색깔과 피부색, 외모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지고 괜히 그 아이가 싫다. 또, 이상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아이들과 소녀는 너무나도 비슷하다. 나이가 같고,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하고, 예쁘고 아기자기 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는 영락없는 소녀이다.

아이들에게 소녀가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소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면 좋을 것이다. 무작정 아이를 얹어서 ‘너, 학교에서 혼혈아인 친구 괴롭힌다며?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라고 화부터 내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면 아이들의 반항심만 커질 뿐이다. 아이와 대화를 통해 혼혈아도 똑같은 친구이고 뛰어 놀기 좋아하며, 부모님께 사랑받고 자라나는 똑같은 친구라는 것을 말이다.

‘혼혈아’란 굴레에서 벗어나 함께 어울려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얼마나 귀엽고 보기 좋은 광경인가? 소녀의 얼굴에는 분명 미소가 내려앉아 있을 것이다. 소녀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는 우리와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보통의 소녀일 뿐이야. 아주 조금 개성이 다를 뿐이지. 그렇지?” 이 대답이 바로 우리가 소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대답이다.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혼혈아 등. 그들은 단지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기

를 원한다는 소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저 우리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도움’이라는 것을 ‘돈’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그저 진실된 말 한마디와 그들에 대한 관심.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전부이다.

이제는 ‘편견’과 ‘색안경’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와 같이 평범하지만 조금, 아주 조금 우리와 개성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준 슬픔을, 이제는 희망과 기쁨으로 되돌려주자. 언젠가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혼혈아’ 이런 그들에게 우리와 다르다는 선을 긋는 이름이 아닌 그냥 평범하게 ‘시민’ 또는 ‘이웃’으로 불리는 날이 빨리 오게 되었으면 좋겠다.

## 학생 인권

응상중학교 3학년 이재현

우리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학생들은 헌법 등의 여러 법으로 인권을 보장받고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아니오. 라는 대답이 내 입에서 바로 나올 것이다. 왜냐고? 뻔하지 않은가?

두발규제를 예로 삼아보자. 분명 헌법 제 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현실은? 교장 마음대로다. 헌법? 그게 뭐가요 먹는 건가요? 하는게 학교다. 헌법이 어쨌든 간에 교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학생은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 언제까지 머리를 깎아오라 하면 깎아야 된다. 학생들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는다. 두발 규제에 찬성하나 안하나 투표도 안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학교가 보여야 할 행태인가? 머리카락은 신체가 아니거나, 학생이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 둘중 하나가 아니면 절대로 받아 들여질 수 없는 것이 두발규제다. 그럼에도 계속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부분 중, 고등학교 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금 이글을 쓰는 나는 중학교 3학년이다. 나의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다. 나는 방학이 시작되기 전 며칠 전까지 학교에서 8교시를 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채팅하다 중3인데 8교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더라. 아무튼 각설하고. 8교시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4월 초반부터다.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다. 내가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해서 학교에서 시키는가? 그것도 아니다. 최대 전교 7등도 해봤다. 내가 8교시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학교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다. 나의, 우리들의 의지는 단 1cm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성적이 좋지 않다. 많이. 어느 정도냐 하면 경상남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적이 안 좋은데, 경상남도에서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곳이 우리 지역이고, 우리 지역에서 꼴등하는 학교가 우리니,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꼴등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수학선생님이 하실 정도다. 이 우스갯소리를 들었을때 이 주제에 대해 잠깐 이야기 했는데, 학생들과 수학 선생님 사이에서 꼴지 하는 원인이 대충 밝혀졌다. 그 이유는 '노는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 높아서.' 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 다. 그러면 학교에서 노는 학생들만 잡아서 공부 시키면 될 것을,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의 모체의 중학교는 '같은 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하지 않으면 분명히 트집 잡아 빠지려 할 것이다.'라며 몸이 아프거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봐 주는 거 없이 3학년 전체 학생 전부다 8교시까지 남기셨다. 남아서 뭘 했는가 하면, 성취도 평가 대비를 했다. 학교 성적은 성취도 평가 대비로 매긴다나 뭐라나... 난 학교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저 행동은 학교의 위치가 '꼴지 하는 학교' 인 것이 싫어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한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해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많다. 야자, 강제 방과 후 학교, 어른들의 무조건 적인 복종요구, 체벌, 두발규제 등등... -체벌은 일부 불량학생을 바른길로 인도 하거나, 학생들의 좋지 않은 행동 등을 고치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냥 문제를 못 풀었다거나 학교의 인권침해적인 행동을 강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추가했다- 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것들은 그저 침해 하는 행동이나 행위일 뿐이지 이러한 인권을 해치는 행동의 근본은 아니다. 이 수많은 것들의 뿌리, 즉 근본을 잡으려면.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원인을 걸고 넘어져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 수많은 것들의 원인은 몇몇의 어리석은 어른들이다.

학생 인권 침해 요소들의 원인인 이 몇몇의 어리석은 어른들은 성공의 뜻을 깜빡하고 있다. 사전에 나오는 성공의 뜻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몇몇 어리석은 어른들이 주장하는 성공의 뜻은 돈 많이 벌어서 으리으리한 집에 살며 돈 자랑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을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저 성공은 사람에 따라 실패가 될 수도 있다. 자기 집 없이 전국을 떠돌아 다니며 사는 것도 성공이 될 수도 있다. 그저 자신이 일생 중 꼭 해야 될, 이뤄야 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인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어른들은 돈 많이 벌어 땡땡거리며 사는게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며 우리들을 혹사시킨다. 어른들이 우리들을 보고 신조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국어 파괴라며 우리를 비판하는데, 단어의 뜻을 왜곡하여 말하는 것도 국어파괴가 아닌가?

그리고 몇몇의 어리석은 어른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만약에 학생 몇몇이 학교의 행동에 비판하는 시위 비슷한 걸 한다고 해보자. 지나치면서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나 할 것이지.' 학생들도 무언가에 불평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있으나 몇몇의 어리석은 어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비난한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이 이성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 염색을 했다거나 귀걸이를 했다면 몇몇의 어리석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학생답지 않게 저게 꼴이 뭐냐. ' 라고. 인간이 나이 들고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다거나 튀고 싶다는 건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런데 몇몇의 어리석은 어른들은 그저 비난만 한다. 남에게 피해만 안준다면 아무래도 상관 없는거 아닌가? 내가 1학기에 배운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간 존중이라고 배웠었는데 우리보다 나이를 더 먹고 머리에 들은 것도 많을 어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시지 아니하니 어찌 나라가 잘 돌아가겠나...

이외에 여러 가지의 어리석음이 있지만 너무 길어져 그만 쓰겠다. 이제는 학생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고 싶다.

인권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 학생이란 이유를 내세우며 각종 인권 침해적 행위를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행한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인권은 좀 침해 당해도 괜찮으며 법정이나 정치판에서 들먹이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할 것이다. 그럼 그 학생들, 아이들이 크면 무엇이 되는지 보자. 어른이 된다. 그러면 아이였던 어른들이 인권을 중히 여길까? 중히 안 여길 것이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더 악화 될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엔 대한민국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이 사람들에게 중히 여겨지지 않는 인권 낙후국가가 되어 국제적으로 망신중의 대 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 이미지도 크게 훼손하며 국익에도 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면 학생들은 그저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진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진짜 인간들은 자신이 머릿속에서 꿈꾸고 바래왔던걸 행할 것이다. 그저 하라는 대로 공부 하는게 아닌 자신이 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고, 예술을 하고, 글을 쓰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어 보지 못하던,

어른들에게 치여 하고 싶지도 않은 걸 강제로 하며 살다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더 넓은, 더 방대한 사회의 여러 분야들을 그 분야들 중 하나에 반해 거기에 종사하는 삶을 꿈꾸는 학생들이 늘어 날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비주류로 불리던 여러 부분들도 규모가 커져 그 분야에서 일하면 소득이 적더라도, 관심을 못 받더라도 같은 말이 나오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분야도 해 볼만 한 곳이더라 하는 말도 나오게 될 것이고 오직 돈 잘 버는 직업에만 사람이 몰리는 현상도 해소되어 취직 못하는 사태도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나라 세금 확보로 돌아가 결국엔 나라가 발전한다. 학생들이 인권을 지켜 주는 것. 이거 하나 만으로 나라가 발전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이유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면 그것이 곧 나라가 건강해 지는 길이며 부강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종종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아직 덜 배운 학생의 좀 짧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4.19 혁명을 일으킨 것도 학생들이 아니던가? 여러 정치적 사태에 계속 참여한 것도 학생들이 아니던가? 지금은 비록 어리석은 어른들의 멍청한 짓거리 때문에 정신이 점점 나약해 지고 고통 받고는 있지만 언젠가 인권을 보장받아 학생들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온다면 그 때가 나라 부강의 때가 되리라고 한 치의 의심도 품지 않는다.

이상 경상남도 모처의 모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의 짧은 수필답지 않은 수필이었습니다. 이 글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문화 가정에 따뜻한 관심을

광주 동아여자중학교 3학년 선한나

무더위가 시작되던 지난 7월 16일 밤, 베트남에서 온 20대의 한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칼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살해되기 겨우 8일 전,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시집왔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남편은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 사건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TV를 통해서 소개되는, 화목하게 연출된 다문화 가정을 주로 접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다문화 가정의 실상에 대한 지식조차 별로 없다. 대부분 농촌이나 공장지대 인근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는 먼 곳의 소문이고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면서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아 우리나라에 오지만, 우리의 '다문화'가 성숙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09년 5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결혼을 위해 이민 온 사람들의 숫자는 167,090명이다. 이는 2008년에 비해 13.6%가 늘어난 수치로, 최근 들어 해마다 국제결혼의 비중이 10%대로 유지되는 추

세를 볼 때,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자의 숫자는 총인구 대비 약 0.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농어촌으로 가면 35.2%의 남성들이 이주 여성들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시골에선 이미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처지는 어떠할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정 안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아내와 며느리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구타를 일삼기까지 한다. 실제로 이러한 폭행을 못 이겨서 다시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주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 가정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들의 처지가 별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들은 간단한 소비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 이주 여성이 국내 실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환불이나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가정의 2세들도 이주 여성의 처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우선, 외모부터가 다르니 또래 아이들이 거부감을 갖는다. 더군다나 말을 가르쳐야 할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 언어 구사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또래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왕따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져 이들 중 70%가 학교를 다녀야 할 시기에 학업을 포기한다. 이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머니가 차별당하고 홀대 받는 것을 보고 자란 영향으로 사회에 대한 반항 심리가 크며, 사회에 대한 냉소적 시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깊어져 결국 반사회적 성향이 띠는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영주권 획득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다. 이주 여성들이 남편들로부터 당하는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취

특하기 전까지 이곳에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바로 주거나 최소한 5년 동안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체류 자격을 미끼로 이주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무시를 비롯한 부당한 대우를 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업체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을 지나다 보면, '도망가면 책임지고 재 알선', '전액후불제' 등의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그 문구 어디에도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존중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이주 여성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를 부추기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주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또 다문화 가정 2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한국어 공부를 비롯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해 매우 수용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선적인 태도는 버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야만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이 우리나라를 비로소 자신의 나라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많은 다문화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이 살아가기에 우리 사회는 무섭고 험한 곳이다.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 아래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우리 문화는, 혈통에 대한 긍지와 문화적 자존심이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외침을 막고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데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다양

한 문화가 유입되어 융화해야 하는 오늘날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 노자는 바다가 위대한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거대한 대륙을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문화가 용광로처럼 주변 문화를 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그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써 왔던 '살색'이란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들과 함께 설계해야 할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내가 만나 뵈인 장애인·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

매홀중학교 2학년 김효경

지난 여름방학에 4박 5일 간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을 다녀 왔을 때 보았던 일 중에 어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자주 떠올라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가 다녀 온 곳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치매환자 어르신들과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모시는 곳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는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오시는데 방학을 맞아 그곳에 갔다가 아픈 풍경을 보고 말았다.

요양원이 있는 곳은 지방도로를 두 시간 가량 시외버스로 달려야 도착하는 산골이었다. 장애인 어르신들의 뒷수발을 하는 중에,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을 수영연습을 겸한 목욕을 시키는 시간에 함께 거들 때의 일이었다. 계곡의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시게 하기 위해 수영복을 갈아입혀 드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손녀딸하고 똑같이 생겼네. 나랑 같이 살자...” 하시는 것이었다. “이쁜 애야 이쁜 애야”하고 울먹이시며 손을 놓지 않으셨다. 손녀딸을 부르시는 모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하고 말씀만 드리는데 자꾸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혼났다.

이 글을 쓰는데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잘 이야기 할수 없었다. 그렇지만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는 할머니의 일은 분명 인

권침해라고 생각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생활이 어려워 자주 찾아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온 우리 또래 중에서 그렇게 손녀딸을 찾고 계신다고 하였다. 우리가 모두 나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손녀딸이 한 차례 “할머니!”를 불러 드리는 게 할머니에게는 더 큰 행복이 될텐데 할머니는 그렇게 “이쁜 애야..” 만 찾고 계시는 것이었다.

그곳의 어르신들은 어려운 가정에서 오신 분이 많아서 대부분 할머니와 비슷한 사정이 있다고 하였다.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보아드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정도 가족에게 버림 받은 장애 어르신들의 슬픔을 변명할 이유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똑같이 인권을 누리고 계신다고는 아무도 말 하지 못할 것이다. 그곳의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의 위로에 즐거워하시고, 종교단체의 행사에 참석하셔서 노래를 부르고 하시지만, 우리 또래의 여자아이만 보면 손녀딸을 생각하여 금세 눈물짓곤 하신다. 가족의 사랑이 못 견디게 그리워서인 것이다.

나라에서나, 종교단체에서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무리 나서서 서둘러도 내 가족의 따스함 만은 못할 거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란, 내 가족, 내 가정에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지켜지는, 간단한 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렵게 외치고 구호로써 만들려고 하는 것은 틀린 해답 일 것이다. 사랑하는 손녀딸이 불러주는 단 한 마디“할머니!”면 해결될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도우려 하는 것이 잘 하는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을 테지만, 부모 형제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주면 그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장애 어르신들의 인권이라고 생각해본다. 잘 산다고 하는 부잣집도 가족끼리 의견이 맞지 않으면, 생활이 조금 어려워도 가족 모두 서로 사랑하는 집안 보다 따스함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할머니처럼 손녀딸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볼 수 없는 경우는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잘 되어 외국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직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건 잘못된 일로 속히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손녀딸을 보고 싶어 하시던 할머니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장애 어르신께 1주일에 한 차례씩이라도 만나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버스를 한 대 장만하여 장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거나 가족들을 오시게 한다면 돈도 많이 들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인지...

인권의 불공평은 사회 어느 분야에도 존재한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지는데, 자주 보게 되는 전철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분들도 그 한가지이다. 조금만 걱정을 해드리면 그 분들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될 텐데 나라에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참으로 많다. 특히 자식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걱정이라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철역 앞 광장에 모여 종교단체에서 드리는 점심을 드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봉사를 하신다는데 식판 위에 밥과 국과 반찬을 푸짐하게 담아서 드리고 계신 자원봉사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무척 밝고 맑아 보였다. 여름방학계 자원봉사를 갔을 때 배운 '남을 돕는 것은 바로 자기를 돕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 한참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써 보았다. 손녀딸을 그리워하시던 할머니께서 가족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 인권문제, 사회를 탓하다

부원중학교 3학년 이상현

이탈리아의 한 레스토랑 앞에 세 명의 사람이 서있다. 한국인 두 명이 이탈리아인 지배인에 의해 식사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영업이 이미 끝났다는 지배인의 말과는 달리, 레스토랑은 식사하는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입을 거부당한 것이다.

위의 이야기는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방영된 TV프로그램 「강심장」에서 소개된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인권문제를 찾을 수 있다.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고 차별을 당하는 인종차별의 한 가지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인종차별은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범세계적인 문제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는 인권문제를 쉽게 마주할 수 있지만 정작 인권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먼저 인권문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인권문제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즉, 인권문제는 아주 보편적인 인권침해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찾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노

약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정부는 노인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한다. 자녀의 동의를 있을 경우 60대 노인들은 정부의 어느 기관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포기하고, 노인들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차별을 당한다.

이 내용은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나무」에 나오는 ‘황혼의 반란’을 조금 바꾸어 쓴 이야기이다. 정부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노인을 죽인다는 것은 소설에만 등장할 법한 이야기이지만, 곧 우리의 미래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현재에도 우리는 노인들을 혼란스러운 사회의 한가운데에 방치하고 있으며 보살피지 않고 있다. 그들은 독거노인들로 남아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거나, 요양원으로 보내질 뿐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들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손자와 손녀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길 원한다. 우리가 이런 노인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권문제 역시 많이 일어난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에서부터 심지어는 그들의 부모에게까지 인권침해를 당한다. 다음의 상황을 살펴보자.

병원 응급실로 엄마가 4세 7개월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내원한다.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쳐서 아동이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든 채로 병원에 오게 되었다. 의료인은 엄마의 우울증 정도가 심하며, 병원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한 아이를 또 다시 때릴 가능성이 있기에 중앙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원하는 상황이었다. 그 아이의 눈과 볼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으며, 두려움이 서린 얼굴로 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은 엄마와 아이가 각각 다른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했다. 엄마의 우울증과 분노조절능력

부족, 높은 학습기대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의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게 되었다. 평상시에는 아동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보이나, 학습과 교육적인 면에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고, 아동모의 이루지 못한 학습욕구가 아동을 통해 강요되고, 행동과 말이 느린 아동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자, 아동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학대를 하게 된 것이다. 학대를 하고 나서는 미안한 감정에 아동을 달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 예를 보면 4살의 어린 여자아이는 자신의 엄마에게 학대를 당한다. 엄마는 아이의 학습능력으로 아이를 학대하게 된다. 이렇듯 아동의 인권문제는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되며, 그 일은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는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인권문제에 대해 말하면 누구나 장애인들을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인권문제 역시 심각하다. 아래 이야기는 정신지체 2급의 H군의 사건이다.

2001년 5월 어느 날 오락실근처 역에서 소매치기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던 형사 3명에 의해 절도범으로 오인 받게 된 H군은 하루 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H군은 정신지체 2급이면서 자폐 성향을 보이는 21세의 청년이다. 경찰수사에서는 범인으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수사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H군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과잉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가족들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압력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과민 반응 등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결백조차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의 편견조차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관념과 편견을 먼저 버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주네 주민등록등본에는 아빠가 없다. 엄마와 현주 둘 뿐이다. 서류상에 없는 이 아빠는 그림자처럼 숨어서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에서 나온 한 가닥 끈이 어린 현주와 정신분열증을 앓는 아내에게 연결되어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건네주고 있었다. 현주의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고, 아빠는 출입국보호실에 갇혀 있다. 아이는 침침한 방안을 헤치고 딱 손수건만큼만 들어오는 햇볕을 따라다니다가 배고프면 과자 몇 개 주워 먹는다. 네 팔인인 현주의 아빠는 1992년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하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물론 불법체류상태였던 그는 결혼식도 못 올렸고,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예금통장을 하나 갖는 것이었고,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것이었지만, 그 두 가지 모두 이루기 힘든 꿈이었다. 그는 한국에 입국했던 초기 사장에게 여권을 빼앗겼기에 여권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

불법체류자인 현주의 아빠는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다. 여권마저 빼앗긴 탓에 정식적인 결혼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서부유럽 쪽에서도 심각하다. 파리에 서 택시운전을 하는 한국인의 글을 읽어보자.

비록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인종주의자들이 에트랑제(외국인)가 운전하는 택시를 되도록 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빈 택시가 없을 땐 할 수 없이 타지만 빈 택시가 많을 때는 앞의 택시부터 차례대로 운전사가 에트랑제가 아닌지 확인하고 올라타는데 택시의 유리창 너머를 빠끔히 쳐다보는 모습은 영 기분을 상하게 한다. 오직 그들만이 순서대로 탑승하지 않

는 부류였는데, 그들에게 왜 보기 싫은 에트랑제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느냐는 생각이 있을 터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 있던 에트랑제 택시운전사를 기피하고 자기 택시에 올라탄 그들에게 “차례대로 앞의 택시를 타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프랑스인 택시운전사들이 적잖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결국 다른 택시정류장을 향해 멀어졌다. 파리의 택시운전사들 사이에는 경쟁 심리도 없지 않지만 인종의 차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연대감도 있었다. 어쨌든 이런 인종주의자들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런 사람들이 국외자인 내 택시를 타지 않으려 하는 것 또한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렇듯 현지인들이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태도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인권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부터 인권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노인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지원,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그들과 다르다. 노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노인이기 이전에 우리의 부모이며,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도 서서히 늙어가고,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 할 수 있고, 이해해야만 한다. 물론 앞에서 말한 재활서비스 또한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노인들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들을 위한 인권보호이며, 진정한 효도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우리의 지속적인 시선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아이들은 점차 자라서 우리나라, 전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주인공들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아이들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해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함양이 먼저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지역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복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이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해 언제 장애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구가 점점 세계화됨에 따라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늘어났고, 외국인 노동자 또한 늘어간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엄청난 비용 때문에 제대로 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과 같지는 않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만들면, 이들도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려고 할 것이고, 의료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통한 봉사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들의 돕기 위한 단체에 많은 일손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앞에서 잘 보았듯이 인권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시설보다도 우리들의 따뜻한 시선을 보냄과 동시에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인권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고 등 부 최 우 수

- 관람도 봉사가 되는 대한민국  
서울국제고등학교 신해성
- 두 개의 인권  
김해여자고등학교 김한결



## 관람도 복사가 되는 대한민국

서울국제고등학교 3학년 신해성

봉사활동 소감문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자가 활동 장소에서 겪은 보람찬 일과 그에 대한 봉사자의 느낌 같은 것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밝고 희망찬 이야기를 쓰게 된다면, 그것은 내 자신과 세상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날 겪었던 일은 "봉사활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고,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 보려고 한다.

봉사활동을 일정 시간 채우는 것이 의무가 된 이래,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받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닌지라, 많은 봉사활동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2010 서울국제장애인마라톤을 보조할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었다. 나는 평소에 인권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 활동에 참가하면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재빨리 신청을 했다. 이 기회에 장애인 마라토너들을 보조하고 대회 진행을 도우는 등의 일을 하면서 장애인 분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망의 5월 2일, 그제야 나는 내가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때 모집했던 자원봉사자들의 할 일이란, '관람'이었던 것이다. 행사장 주 위에는 나 같은 학생들이 수백 명씩 모여 경기장에 삼삼오오 자리 잡고 있었다. 관람이라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날 나는 처음으로 관람도 봉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게 뭐? 원래 다 그런데? 왜 그런 사소한 것으로 화를 내느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이런 일이 이전 아주 흔해져서 누군가에게는 '관람도 봉사가 된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아무튼, 전혀 뜻하지 않게 '관객'이라는 역할을 떠맡게 된 나는 억지로 웃었고, 억지로 박수를 치고, 거짓된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 때, 내 마음은 줄곧 울고 있었던 것만 같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 긴 시간 지하철을 타고 이곳까지 달려왔는지, 너무나도 억울했다. 더 슬펐던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로 이 행사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었다. 사회자가 온갖 애를 써가며 장애인 마라토너들이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함성소리는 없었고, 웅성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주최 측에서도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는지, 가수들과 댄서, 곡예단 등의 공연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땀 흘려 뛰는 장애인 마라토너들이 지나가는데도 떠들썩한 공연에만 학생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그 아이러니함이란. 누가 이 행사의 주역인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다섯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경기장 밖을 터벅터벅 걸어나가며 이름 칸과 학교 칸이 비어있는 노란색의 봉사활동 확인증을 받았다. 어쩐지 국사 시간에 배운 공명첩이 생각났다. 이름이 비어 있고, 그리고 무언가 뒤틀린 사회 현실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더 우스운 건, 그 빈칸 아래에 쓰여 있는 '활동 내용'이었다. '대회 응원 및 경기장 정리

'라 쓰여 있는 글귀를 보며,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학생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들로 가득했다. 이것이 정말로 '경기장 정리'였나 보다.

왜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졌을까.

주최 측의 입장은 이랬을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 대회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 '국제 장애인 마라톤'이라는 큰 대회를 여는 주최 측의 입장에서, 무관심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 결국 그들이 낸 궁여지책은 '봉사활동 시간을 미끼로 하여 학생들을 오게 하자'였을 것이다. 덕분에 텅 비었어야 할 관람석이 꽉 찼고, 대회는 구색을 갖추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장에 모인 학생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래 '국제 장애인 마라톤'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고, 알았어도 갈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준다는 말에 학생들은 부랴부랴 행사장으로 찾아왔고, 앉아서 다섯 시간만을 보내면 봉사 활동이 인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게 편하게 앉아 경기는 뒷전인 채 웃고 떠들기만 하다가 시간만 채우면 봉사 시간을 다섯 시간이나 얻는다.

따지고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이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윈윈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계산식 속에서는 분명히 희생당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봉사의 참된 의미와 장애인의 인권이다.

봉사활동이 보람 있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봉사 시간은 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보상일 뿐이다. 그러나 현 입시 제도는 쉽게 계량화 할 수 있는 '봉사 시간'만을 중시하고 있어 봉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박탈한다. 결국 학생들은 봉사

그 자체보다는 봉사 시간에만 집착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대회의 주최 측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수단으로 '봉사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또다시 봉사의 참된 의미는 희미해지고, 이러한 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의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려는 장애인들의 노력도 허사가 되어 버리고 만다.

그 결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는, 결과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결국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되고 만 것이다. 주최 측에서는 이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또다시 경시되고 말았고,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고쳐지지 않은 채로 남고 말았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수백 번 이런 대회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일까. 오히려 이렇게 허울만 좋은 대회들로 장애인 분들의 진심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한 후 진땀을 뻘뻘 흘리며 활짝 웃고 있는 장애인 분들의 모습이, 나에게서는 어쩐지 슬퍼만 보였다. 휠체어를 탄 채, 그들끼리만 옹기종기 모여 즐겁게 대회를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으며 깔깔 웃으며 제 갈 길을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나는 가슴 한 쪽이 먹먹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참된 의미의 봉사란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겉치레만 중시하는 대회들이 장애인의 인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대답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 봐야만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관람도 봉사'가 되는 이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장애인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것도 쉽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두 개의 인권

김해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한결

“누굴 보고 그렇게 자꾸 인사를 하니?”

내가 뒤돌아보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 엄마가 눈살을 찌푸렸다.

“왜? 엄마?”

“저런 사람이랑 인사하는 거 아니야.”

“까만 사람이라고 놀리는 건 나쁜 거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사실은 저 사람들이 더 착하단 말이야.”

“요즘은 저런 외국인들이 나쁜 일을 많이 일으킨단다.”

아빠가 ‘에헴!’ 하고 거드셨다.

“웃는 게 저렇게 예쁜데?”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엄마와 아빠의 양손을 꼭 붙잡고 시내에 신발을 사러갔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검은 피부의 외국인과 눈이 마주쳤다. 외국인이 내게 미소를 건넸다. 사고 싶던 신발을 사서 기분이 좋던 나는 신이 나서 활짝 웃어보였다. 지나친 뒤에도 뒤돌아보고 또 보고 기어이 엄마랑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손을 들어 인사했다. ‘우리’는 서로가 안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며 댔다.

-까만 사람은 누구고, 저런 외국인들은 누구인지, 나쁜 일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더 착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마냥 예쁘게 웃는 사람은 다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닌가 보다.

김해에는 공단이 많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 김해에는 ‘알라갈라’가 많다.

“야, 개네 그거 알아듣는다! 알라갈라라고 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아, 근데 알라갈라 이걸 어디서 나온 건데?”

“나도 몰라. 근데 개네들 말이 이상하니까 알라갈라라고 하는 거 아니가?”

“야, 요샌 여자 알라갈라도 완전 많던데? 커플임 커플. 징그럽게 완전 붙어 다닌다니까!?”

교실에는 ‘알라갈라’가 자신의 뒤를 따라온 얘기, ‘알라갈라’가 자신을 훑어 본 얘기, 밤에 시내를 걷는데 ‘알라갈라떼’를 만난 얘기로 북적북적하다. 우리 세상에서는 ‘알라갈라’가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는 가수 세븐의 컴백소식을 앞지른다. 하지만 ‘알라갈라’가 공장에서 타죽은 뉴스는 세븐이 컴백하고, 음악 프로그램 1위를 하고 후속곡을 낸 뒤에도 쫓겨는커녕 출발도 못하고 있다.

-김해 시내에는 모든 것이 두 개다. 한글문방구와 지렁이문방구, 한글슈퍼와 지렁이슈퍼, 한글휴대폰대리점과 지렁이휴대폰대리점. 그런데 우리는 모두들 한글문방구와 한글슈퍼만 볼 줄 안다. ‘알라갈라’의 꼬부랑글씨로 빼곡한 a4용지를 붙여놓은 지렁이 상점에겐 관심이 없다. 김해시내의 지렁이들은 땅속이 아닌 땅 위에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학생기자다. 할인마트가 생기고 편의점이 생긴 뒤 꼭꼭 숨어버린 재래시장이 외국인 손님들로 활기를 찾았다. ‘재래시장과 외국인과의 공생’이라는 외국인에게 인터뷰를 부탁했다. 재래시장에는 자주 가는지, 사진 한 장 찍어 줄 순 있는지. ‘초상권’ 운운하며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지도 물

었다. ‘알라갈라’ 사이에서 떠들어 대는 나를 여기서 흘끗, 저기서 흘끗한다.

“한결아, 어제 혹시 재래시장 갔었나?”

“거기에 외국인들하고 있던 사람이 니 맞나?”

“왜 그랬어?”

“어우! 그래도 혼자서. 안 무섭더나?”

“니도 대단하다. 한 돌도 아니던데, 아 개넌 맨날 우루루 몰려다녀 무섭게. 진짜 싫어!”

-친구는 착하다. 공부도 잘한다. 운동도 잘한다. 부모님 일도 매일 돕는다. 반장이다. 선도부다. 동아리 회장이다. 선생님들도 다 좋아한다. 다른 친구들도 다 좋아한다. 근데 ‘알라갈라’는 싫어하겠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다. 시내에서 가장 큰 미용실이다. 미용사 언니들도 예쁘고, 머리모양 상담도 해준다. 연예인들이나 다니는 고급 미용실에 온 것 같다.

“친구는 머리가 길어서 매직하려면 조금 비싼데~ 학생이니까 싸게 해줄게요. 어느 학교예요? 공부하는 거 힘들죠?”

“머리 매직할거야? 매직? 5만원이야. 어우 이걸 언제 다 퍼니.....”

손가락 다섯 개를 펼쳐 보인다. 교양 있던 미용실 점장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어머, 어머니 오랜만이지네요~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거기! 머리 자를 거야? 이리 와! 잘라줄게! 머리 자르는 거 아니야?”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드시죠?”

“돈은 많이 벌었어? 어디서 왔는데?”

-상하고 영킨 내 머리를 일자로 펴는 내내 웃고 있던 언니는, 자연 곱슬인 ‘알라갈라’ 씨의 머리를 펴는 대신 자신의 눈썹을 곱슬로, 입술을 곱슬로, 이

마 주름을 곱슬로 만들었다. 얼굴 찌푸리면 주름 생기는데, 언니, 여기 주름 하나 추가요!

밤 10시. 혼자 길을 걷고 있다. 가로등이 저 멀리 보인다. 걸음이 빨라진다. 맞은편에 누군가가 온다. 남자다. 무섭다. 외국인이다. 마음이 쿵쥔거린다. 어찌지? 내 쪽으로 다가온다. 소리를 지를까?

“저기요, 김해공항 가려면 어떤 버스 타야해요?”

“아, 여기서 김해공항 바로 가는 버스가 없는 걸로 아는데, 김해공항을 버스 타고 가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밤 12시. 친구랑 들어서 편의점에 들렀다 나왔다. 편의점 앞에서 남자 두 명이 길을 묻는다. 말투가 이상하다.

“이리로 가면 술집 있어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재래시장은 어느 쪽이에요?”

“저 쪽으로 꺾어서 가시면 돼요.”

야, 외국인인가봐. 완전 한국 사람같이 생겼어. 쑥덕쑥덕.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요새는 세상이 흥흥해서 밤에 나가면 안 된다. 요새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사람보다 남자가 더 무섭다. 남자보다 외국인이 더 무섭다. 왜? 외국인이 남자여서 무서운 건지, 남자가 외국인이어서 무서운 건지 사람들은 모른다. 외국인도 사람들이 자신을 남자라 무서워하는지 외국인이라 무서워하는지 모른다.

리더십 캠프에 참가했다. ‘저 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과 8조. 저 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

었다. 이야기가 흘러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 환경 문제와 불법 노동자 문제가 나왔다.

“노동자 인권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불법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이죠. 결혼 이민자나 기타 합법적 노동 같은 경우는 편견을 없애고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 노동자에 관해서는 존재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불법 노동자는 법을 어겼으니까 그 사람 인권까지 국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럼 범죄자도 법을 어겼으니까 인권 같은 건 필요 없다. 근데 왜 범죄자 인권 논하면서 얼굴 공개는 안하지? 정말 법을 어겨서 책임 안지는 거야? 응. 정말로? 응. 진짜로? 응. 국가에서 책임 안지니까 다 같이 모른 척하면 돼. 그냥 모른 척 하면 돼.

현대에는 인권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와 ‘과도한 인간의 권리’. 옆을 지나가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 ‘과도한 인간의 권리’를 누리기 때문이다. ‘과도한 인권’은 현대에 들어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게 된 자신의 권리로, 의식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할 권리’,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싫어할 권리’, ‘소수의 말을 듣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내가 과도한 인간의 권리를 누리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 권리’를 빼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권이 과도한 인간의 권리는 아닌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과도한 인권을 가지는 그 순간,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우리야 말로 ‘과도한 인권’을 가진 인권

탄압의 실체가 아닐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할 권리, 경제력으로 국가를 판단할 권리, 기업 이윤을 위해 아동을 착취할 권리, 자녀가 있다고 해서 여성을 해고시킬 권리, 장애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낼 권리, 군대안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권리, 동성애자를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난 할 권리, 노동자의 파업을 불편하다고 욕할 권리.

‘차이’를 ‘차별’로 만들 권리, ‘다르다’와 ‘틀리다’를 착각할 권리, 고통 받는 사람이 있는 걸 국가 탓으로 돌릴 권리, 상처 받는 사람이 있는 걸 사회 구조 탓으로 돌릴 권리, 나 먹고살기 바빠서라고 합리화 할 권리, 내 탓은 아니라고 모르는 척 할 권리, 나는 그러지 않았다며 자신의 언행을 까먹을 권리.

## 고 등 부 우 수

- 가슴아픈 자기소개서  
효자고등학교 최서아
- 지켜야 하는 것, 지키고자 하는 것  
상지여자고등학교 서지현
- 목숨을 걸고 얻어낸 은영이의 자유,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요합니다.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김성원
- 다르지 않다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 범성희



## 가슴아픈 자기소개서

효자고등학교 2학년 최서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직업이 궁금했다. 어머니께 묻곤 했지만 창피한데 뭘 물어 라고 말씀하시곤 말을 아끼셨다. 계속 질문하던 나를 못 이겨 대답하신 말씀은 강사 “강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러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창피하던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다시 입을 여셨다. “자동차 학원 강사” 아버지께선 학문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일이셨던 것이다. 어머니께선 “누가 묻거든 학원 강사라고 말해 자동차라고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창피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직업마저 어머니께서 부끄러워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어렸을 땐 어머니가 나쁜사람같아 보였다. 하지만 지금생각해보니 학교를 다니게 될 우리에게 더 좋은 직업을 적어주게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셨나보다. 하지만 자동차 학원강사정도면 아버지께선 더편한직업이셨을 것이다. 지금의 직업보단. 자동차 학원강사셨던 아버지께선 현재는 보험료가 들지 않는 직업을 택해 고등학교 학비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일을 하신다.

그 순간부터 새 학기가 싫어졌던 것 같다. 부모님 뭐하시냐는 아이들에 질문과 함께 학교에서 주는 종이 때문. 그 종이는 자기소개서 그것은 자기 소개란이라 하지만 나를 소개하라는 종이엔 항상 가족관계와 부모님의 학교 졸업여부, 직업 등을 기재해야 했다.

어렸을 때 몰랐던 창피함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의 직업을 실제로 적기 보다는 거짓으로 적는 날들이 많았다. 그렇게 부모님이 창피하던 어느 날 행복한 tv동화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한 담임선생님이 자신의 제자였던 학생을 얘기하는 듯 한 내용이었다. 그 제자는 실업계 한 소년이었다. 이 소년의 가족환경조사서를 받아보았을 때 어머니의 직업이 호텔종업원이라고 적혀있기에 이 학생의 깔끔한 외모로 보나 성적으로 보나 어머니의 직업이 전혀 객실청소를 하고 허드렛일을 한다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상담을 해보니 그런 일을 하신다고 꾸밈없이 말했다고 한다. 보통아이들 같았다면 나처럼 거짓으로 말하거나 꾸며서 말했다 어머니의 직업을.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이 진짜 어머니를 창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건 한 기업에서 학생을 추천받는다 고 날아와 그 학생을 추천하고 싶어 했을 때였다. 맘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가족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었다. 학생을 불러 물어보았다 이 원서를 내려면 부모님의 직업을 좀 바꿔 써서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학생이 하는 말은 부모님의 직업을 창피하게 여기는 직업이라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반성 많이 했다. 아버지의 직업을 창피해하던 나를..... 고물상일 때문에 궂은일을 하시면서도 웃음을 잃으시지 않는 아버지를 창피해하던 내 자신이 더 창피했다. 자신은 냄새나는 쓰레기를 줍고 차에 쌓으시며 일하시는데 나는 정작 편안하게 공부만 하며 아버지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아까 위에 이야기처럼 도대체 왜 아직도 우리사회에선 우리의 능력

도 요구하면서 부모님의 직업까지 원하는가. 우리 부모님들의 능력을 알고 싶어 하고, 부모님의 직업을, 부모님의 학교 졸업여부를 그리고 가족관계를 새 학기마다 적어내야 하는가. 어차피 사실 그대로를 적어봤자 도움을 줄 것도 아니면서, 형식상 절차를 다 밟아야만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왜 적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많을 수도 있고, 직업도 다양 할 것이다. 이혼한 한 부모 가정 자녀일 수도 있고, 고아는 아니지만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자신의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 평소엔 자부심을 느끼더라도 그 종이에 자신의 직업을 적는 날엔 자식에게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창피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자기소개서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처지를 직시한다는 것밖에 상처 주는 소개서로밖에 생각 들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의 인권이 있는데 왜 적어야 할까 이것은 자기소개와 별개인 문제인 것 같다. 물론 표면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건의 해당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권은 학교든 어디에서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가족관계나, 부모님의 직업을 적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더 안겨준다는 생각 밖에 안는다. 초졸이든 고졸이든 대졸이든 고아든 한 부모 가정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든 모두 같은 사람인데 왜 적어야 하는가. 직업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자기소개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절대 이제 아버지의 직업이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걸요.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힘들일 아버지가 하시고 계신거 같아요 아버지  
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 지켜야 하는 것, 지키고자 하는 것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서지현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칙이 엄한 편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은 우리를 보며 단정하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불만이 많다. 나는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은 ‘학교 규율’이라는 명칭 아래 머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드러내지 못할 아우성이 생겼다. 올 2010년 2학기부터 강원도를 시범도시로 하여 전국에 있는 중·고교 학생들의 두발 규제뿐만 아니라 교복, 자율학습 등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인권조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들도 두발규제가 풀리지는 않더라도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학생들과 선생님사이에서 정리된 의견은 나오고 있지 않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학교는 무질서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또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학생들의 자율에 맡긴다면 학교가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다. 반대로 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생활의 얼마나 많은 부분

을 구속받아야 하며 우리의 자율이 어째서 학교 교육과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한다. 선생님은 선생님들만의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며 마음대로 단정을 짓고 학생들 역시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보며 이리저리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 자꾸만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학생과 선생님들의 사이에서는 비슷한 문제들을 놓고 벌써 오랜 기간동안 논쟁해왔다. 인권조례의 선정이유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과 동시에 그동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폭력들을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조례는 또 다른 갈등을 빚는 요소가 아니라 그동안 묵혀왔던 갈등을 풀기위한 열쇠로 사용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꼭 내가 학생이라서가 아니다. 모두가 밥을 먹거나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또 이 문제가 누군가에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나 마찬가지로 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권조례는 기본적인 인권, 부당한 폭력이나 억압을 금지함으로써 인간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믿고 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고문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잘못된 학생이라도 기본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 물론 학생이 잘못 했을 때에도 무조건 용서를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학생이 지각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 담임선생님의 마음대로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거나 육체적 체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알맞는 합리적인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에도 경찰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인권이 지켜지는 한에서 적당한 규율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인권조례가 제

정됨에 따라 학교 규율이 엉망이 되어 교육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우려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잘 생각해야 한다. 몇몇의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떠한 강제적 규율이나 간섭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에게 무분별한 자유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에 따라서는 더욱 큰 책임이 따른다. 인권 조례가 제정 되었다고 선생님께 대들거나 학교 교칙을 위반하는 일이 보호를 받거나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더 큰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 인권조례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결코 모든 것을 학생들의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도 되는 권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또,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만약 추운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난로가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인지 이리저리 연구해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함에 따라 그 사람들은 난로의 따뜻함과 그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난로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들은 난로에 대한 소중함과 그 따뜻함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추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고 아무렴 뭐 어때 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면 우리는 난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지금의 현실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다면 난로의 소중함을 알고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권이 보장받고 지금보다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조례가 제정되어진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우려할점은 있다. 과연 이 인권조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학생들이 인권조례가 그들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권을 소중하고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과거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을 것이다. 인권조례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학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문제의 해결은 대부분 어떤 원칙없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학교의 임의대로 해결되어 왔다. 아직도 일부 선생님들은 원칙없는 기준으로 인해 체벌과 언어폭력으로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사람으로 대접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 권리인 인권을 보호 해주는 일은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는 이 ‘인권 조례’를 통해 선생님과 학생 모두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 목숨을 걸고 얻어낸 은영이의 자유,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김성원

매주 일요일, 나와 은영이는 영어 교과서 하나를 펴놓고 두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다. "성원아 우리 10분만 쉬고 하자, 응?" 졸음과 맞서 싸우다 지친 은영이는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내게 귀엽게 부탁한다.

"어쩔 수 없네, 그럼 딱 10분만이다?"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금세 잠에 빠져버린 은영이를 보며 지난여름 은영이가 힘들게 말해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지난 2003년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13살의 나이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은영이는 북한에서 건너 온 새터민이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평범한 13살 소녀인 은영이는 남한에서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었다.

"재 북한에서 온 애래. 좀 무섭지 않아?"

말투가 남들과는 달랐던 은영이에게 친구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다. 친구들의 차별과 처음 겪어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은영이는 결국 동네가 다른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1년 동안 남한의 문화에 적응한 은영이는 더 이상 '북한에서 온 애'가 아니었지만 행복했던 은영이의 중학교 생활은 길지 못했다.

어느 날,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은영이를 선생님께서 부르셨다. 은영이의 기록부를 열람하다가 은영이의 출신을 알게 되신 선생님

은 다음 시간이 북한과 남한의 문화 차이를 공부하는 시간이니, 은영이가 새 터민임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고 한다. 순간 은영이의 눈앞에 초등학교 시절 은영이를 바라보던 친구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마치 방에 들어온 벌레를 보는듯한 눈빛…….

당시 내게 이야기를 해주던 은영이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화장실로 황급히 들어간 은영이가 흐르는 수도물에 눈물을 씻어내며 나도 방에서 부끄러움과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온 은영이에게 인권이란 무엇이였을까. 원하는 예쁜 옷을 사 입고, 친구들과 평범하게 연예인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꿈 많은 고등학생이 되고 싶었던 은영이의 소망을 막은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사실 나는 비교적 윤택한 가정에서 자라와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한번도 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느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TV 다큐멘터리나 주간지에 실리는 가난한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의 세계는 나와는 다른 세계였다. 더군다나 태어나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며 그저 나의 생활에 감사하기만 했던 멧모르는 중학생이었다.

이런 내게 은영이와의 수업은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년 반 동안 수업을 함께하며 공부뿐만 아니라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으면서 은영이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서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살 권리를 위해서였다. 은영이가 생각하는 인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웃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험이 끝나면 좋아하는 물건을 사러 쇼핑을 나가는 학생다운 살 권리를 바라고 은영이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온 것이었다. 내가 평소 당연하게만 생각해왔던 친구들과의 수다조차 은영이에게는 너무나 힘들게 싸워 얻어낸 결과였다. 그런데 은영이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탈북을 했는지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영이의 출신 공개는 선생님에게 수업 자료로서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은영이에게서 친구들과의 우정을 빼앗아갔다. 은영이의 같은 반 친구들은 은영이의 상처를 감싸주는 대신 나와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은영이를 집단에서 철저히 배제시켜버렸다. 그 어떤 집단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에 밤을 눈물로 지새왔던 은영이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까? 이대로라면 새터민 꼬리표를 달고 성인이 될 은영이는 앞으로 끊임없이 인권을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은영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금도, 기업의 후원금도 아니다. 은영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堂堂한 삶을 누리기 위한 주변 사람들의 약간의 배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다. 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지켜봐온 은영이는 출신 지역만 다를 뿐 여느 수줍음 많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청소년과 다르지 않았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옳지 못한 선입관을 버리고, 나의 인권을 존중하듯 남의 인권도 존중한다면 더 이상 은영이와 같은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은영이의 집에 간다. 커서 경제학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싶다는 은영이는 오늘도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있다. 우리의 작은 인식의 변화가 비로소 은영이의 눈물 젖은 베개를 마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은영이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은영이가 더 이상 새터민이라는 편견의 딱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인권을 존중받을 내일을 상상해본다.

## 다르지 않다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 1학년 범성희

나는 그저 황망한 시선으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음식을 주문할 생각으로 들떠있었던 레스토랑을 돌아보았다. 점점 화가 치밀었다. 점원은 점잖게 다시 또박또박 말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세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정중함을 가장한 압박이었기에 뭐라고 말도 하기 힘들었다.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흘끗흘끗 보았지만 다 모른 체 했다. 동조한다는 듯.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기에 돈 주고 밥 먹으러 온 사람을 내쫓는단 말인가. 나는 언니를 부축해서 일어났다. 그저 방실거리며 웃고 있는 언니를 찌려보았다. 언니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 것보다 레이스가 달린 식탁보다 더 마음에 들었는지 나올 때까지 잡고 놓지 않아 애를 먹었다. 겨우 우리를 현관까지 배웅한 점원이 깊숙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언니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냐? 우리 쫓겨난 거야. 언니 장애인이라서 쫓겨난 거라고.”

“배고파- 미연아, 배고파-.”

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심호흡으로 가라앉혔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언니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었기에 나는

울적해지는 기분을 다잡으려 애썼다.

“언니,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안 된대. 우리 여기 말고 더 맛있는 데 가자.”

“어어- 어어-.”

언니의 말이 공허하게 울렸다. 부정보다는 긍정의 대답이 더 많은 언니. 상대가 원하는 건 무조건 크게 고개를 끄덕여 보여주면서 호응해주는 언니를 보면 문득문득 서글퍼지기도 했다. 이렇게 착한 언니에게 레스토랑에서 돈까스 하나 사먹일 수 없다니. 나는 그대로 언니를 잡아 끌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에 기분이 나빠진 것은 나였다. 그저 아무 것도 모른다는 듯이 방긋방긋 웃고 있는 언니를 바라보며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세상은 장애인이 살아가기엔 그닥 좋지만은 않은 곳이라고 또 생각했다.

언니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어렸다. 나는 언니가 부끄러웠고 남들과는 다른 시선을 받는 언니가 가여웠다. 그리고 나는 언니의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서 오르내리는 것에 극도로 민감했다.

“너네 언니 장애인이라며?”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들었나, 귀를 만지작거렸다. 반에서 간죽거리기로 유명한 소희가 내 앞에서 알짱대고 있었다. 1학기 첫 날부터 자신보다 훨씬 높은 성적으로 입학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기집애였다.

“정신지체 장애인. 너 그래서 네 언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질색을 했구나? 하긴, 창피할 만도 하지. 빠진 것 하나 없는 전교 1등한테 그런 털떨어지는 언니가 있다니.”

“안 닥쳐?”

나는 꼬리를 밝힌 고양이처럼 최대한 정신을 치켜세우고 낮은 목소리로 내

뻘었다. 소희가 빈정이 상한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시답잖은 걸로 빈정거릴 시간 있으면 영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지 그래. 우리 언니 신경쓰기 전에 네 그 오르지도 않는 등수나 생각하라고.”

흥분했던지라 빈정이 상할 말들만 다다다다 쏘아붙이고는 급히 자리를 떴다. 뒤에서 재수없다며 욕설을 지껄이는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반을 뛰쳐나왔다. 숨이 턱 막혀왔다. 소희가 어떻게 언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언니의 병이 또 한 번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는 거다. 분명 소희 그 기집애는 다른 애들에게 언니의 병을 떠벌리고 다닐 것이다. 나는 눈을 꼭 감으며 쉽게 가라앉혀지지 않는 가슴을 광광 쳐댔다. 속이 울렁거렸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언니는 깊게 잠이 든 상태였다. 24살의 꽃다운 언니는 지금쯤이면 대학에 들어가 한창 즐기고 있어야할 나이였다. 이런 방구석에 힘없이 늘어져 울다 지친 얼굴로 잠이 든 것이 아닌, 좀 더 예쁘고 밝은 생활을 했어야 했다. 나는 언니의 다리에 의해 걷어차인 이불을 좋게 덮어주곤 방을 나왔다.

늦은 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달무리를 보았다. 더운 여름의 열기가 그나마 가라앉은 밤에 보는 고요한 달무리는 내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너무 빠르게 뛰는 가슴에 불안한 느낌이 들 정도여서 살짝 소름이 돋았다. 집에 가면 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언니도 달무리를 보면 예쁘다고 자각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 한심한 질문을 해보았다.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급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언니가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다. 울먹거리며 말하는 엄마를 보며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언니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인물

이 아니다. 도둑질은커녕 누군가를 때리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언니일 뿐인데. 나와 엄마는 급히 차에 시동을 걸어 경찰서로 향하였다.

“아니, 이 분이 정상이 아닌 건 알겠는데 본 사람이 한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잖아요. 애가 안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뭘 더 조사해야겠냐구요!”

흥분한 것인지 목소리를 높이는 엄마의 모습에 나는 조심스레 언니에게 다가갔다. 언니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엄마와 경찰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언니는 수퍼에서 과자를 훔쳐 나오고 잠귀 두지 않은 차에서 지갑을 꺼내갔다. CCTV에 그 증거가 고스란히 들었다고 으름장을 놔다. 언니의 곁으로 가서 살며시 안아주는 나를 언니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기라도 한 것처럼 꼭 붙들어 잡았다.

“애초에 저 정도 되는 장애인은 집에서 관리를 잘 하든가. 왜 집 밖으로 보내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들니까?”

“뭘, 뭐라구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피해자 쪽에서 말이 많아요! 성추행까지 했다나 뭐라나. 솔직히 저도 여자가 무슨 성추행을 하겠나 설득은 해봤지만 피해자가 그렇다는데! 게다가 그 쪽은 정신지체까지 지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찰 쪽에서도 감감했는지 이제는 해야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했다. 엄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대로 굳어 뒷목만 잡을 뿐이었다. 언니는 엄마를 보며 기어코 눈물샘을 터뜨리고 말았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화가 기어코 터지고 말았다. 나는 씩씩거리며 눈을 치켜뜨고 경찰들을 노려보았다. 입술을 비집고 욕설이 튀어나왔지만 차마 경찰들을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울어재끼는 언니때문에 경찰서의 분위기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을 정도로 싸한 냉기가 흘렀다. 정신지체인 언니는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그 날, 새벽 2시까지 우리는 경찰들과 시름을 해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는 ‘어어-’ 거리며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에는 아까 내가 보았던 달무리가 떠있었다. 그것을 보고 방방 뛰어대는 언니를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감동에 눈을 살며시 감았다 떴다. 언니는 달무리를 보며 예쁘다 생각할 줄을 알고 엄마의 슬픔을 보고 같이 울 줄도 알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언니는 도둑질이 나쁜 것임을 알고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남들에게 정신지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무시받던 언니는 결국 그 혼자만의 시간동안 남들 몰래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터득하며 살아왔던 건 지도 모른다. 언니는 ‘우리’와 다를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언니에게도 항변할 권리가 있고 이 사회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니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무시했고 언니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함부로 제단하고 빼앗았다. 그리고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정작 약한 사람에겐 강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조아리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것이다. 언젠가 신문에서 보았다.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대학 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시설들 때문에 애를 먹는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기사를. 연말이 되면 불우 이웃을 돕듯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 몇 가지를 바꾸고 위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썩썩 달리는 차도를 위태롭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전동 휠체어가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이다. 두 다리 멀쩡한 사람만을 위한 인도. 그리고 질주를 허락하는 차들만 다니는 차도. 멀쩡하지 못한 몸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선거철만 해도 그렇다. 말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제대로 실천되는 공약이나 있는지 모를 일이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이 되지 않는 이상, 더 나은 행복을 구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이 비정상인지 양심으로 먼저 깨닫고 세상을 돌아보는 눈, 그런 눈이 이 사회에 절실한 때인 것 같다.



## 고 등 부 장 려

- 엄마, 나 엄마가 되었어요!  
영파여자고등학교 정지연
- 청소년 인권, 그 무한한 가능성  
경남 창원고등학교 정동화
- 인간은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수원화홍고등학교안현담
- 사람의 특권, 인권  
인천 문일여자고등학교 권예은
- “인권은 늘지 않는다”  
광주여자고등학교 최지영
- 인간은 인간답게 처다봐주세요  
충남여자고등학교 김한슬
- 잔인한 배려  
경북고등학교 최현호



## 엄마, 나 엄마가 되었어요!

영파 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지연

생명의 탄생은 아주 고귀하고 소중해서 누구든지 그 순간만큼은 엄숙해지고 성스럽게 생각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성장하고 어머니들은 새삼 위대해 보이기도 한다. 이 세상에 흔히 보이는 사람들이 다 같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을 것을 생각하니 새삼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 자신조차도 소중하게 생각되어진다.

그런데 눈을 더 크게 뜨고 세상을 보면 생명을 낳았다고 해서 다 축복을 받고 따스한 시선으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란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아는 '10대 미혼모'들은 생명을 잉태한 순간부터 이미 세상에서 버림 받은 존재가 된다. 만약에 가족 간에 이야기가 잘 되어 키운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미혼모'조차도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10대 미혼모'의 삶은 얼마나 처절할까.

왜 미혼모들을 그런 시선으로 봐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대답할 것이다. '학생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 행실이 얼마나 나빴으면 그런 일을 했겠어!'라고. 그런데 미혼모 혼자만의 잘못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모든 질타를 혼자서 견뎌내야 한다. 가뜰이나 심란하고 걱정이 많을 가슴에 위로는커녕 수많은 비난으로 못까지 광광하고 박기까지 하는 셈이다. 미혼모들의 가슴에는 죄책감만 더 쌓여갈 뿐이다.

사람들은 그녀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저 10대란 나이에 잉태를 했다는 사실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마음껏 깎아 내리기 까지 한다. 물론 10대 미혼모들이 해서는 안 될 큰 일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뱃속에 생명이 있고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뿐더러 아기를 가졌지만 그녀들은 힘이 없는 여린 10대 소녀일 뿐이어서 아직까지 어딘가에 기대어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녀들이 곧 20대가 된다고 하여도 아직 미완성 단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기와 나’는 미혼모가 남자친구에게 아기를 두고 가 버리고 그 남학생이 아기와 함께 지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미혼모의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기를 낳았던 이유로 학교에서는 나가줄 것을 요청한다. 똑똑한 전교1등 소녀는 말했다. 규정에는 아기금지라는 규정은 없다고. 따지고 보면 정말 맞다. 아기 금지라는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미혼모를 학교 밖으로 내몰아 10대로서의 삶의 권리를 빼앗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야 말로 10대 미혼모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한다. 또, 주변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들 하는데 그 주변 학생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주변에서 따스한 손길을 더 내밀어야 한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나이에 아기를 갖고 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숨어 있어야 한다. 홀로 무거운 짐을 다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로의 터널과도 같은 일이다. 그러니 주변 어른들이 아기 돌보는 것을 도와주며 몇 년이 지나고서 10대 미혼모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최소한으로 고등교육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타깝게도 많은 미혼모들이 보호시설에서 간신히 의지하며 공부도 겨우 해내는 실정이다. 그렇게 해서 아기들을 성장시키면 가난은 또 다시 되물림 될 것이요, 상처도 물려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10대 미혼모들은 결국 자력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을 땐 겨우 낳은 아기를 입양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녀들의 텔레비전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다. 엄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다 찢혀졌었다. 어리지만 그래도 그녀들은 분명 엄마인 것이다. 그렇게 10달 동안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며 함께 한 자신들의 아이와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그 마음은 기억에서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을 고통으로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그녀들은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러니 사회에서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만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희망을 갖고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 인권, 그 무한한 가능성

창원고등학교 1학년 정동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이란 뜻이다.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천부 인권 사상도 역시 ‘인권’에 관련된 것으로, 인간이 가진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인권’의 정의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완성되어져 갔다. 서양에서의 인권 개념은 인간의 권리가 자연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발전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은 자연권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점에서 권리는 인간에게 적용된 자연법이고,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이며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등한 인권은 역사 속에서의 많은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사건들을 꼽자면 흔히 근대 시민 혁명들을 많이 든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의 경우에는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투쟁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인권을 위한 혁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여 국민 주권을 위해 일어난 4.19 혁명, 군사 정부 독재에 반대하여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난 6월 민주화 항쟁 등 시민

들은 자유와 평등, 더불어 소중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뚝뚝 뭉쳤고 그 뜻을 이루어 냈다. 이렇듯 오랜 역사에 걸쳐 항쟁해 온 ‘인권’은 잃어서는 안 될 우리의 기본 권리이다. 요즘 사회는 정보화, 근대화 되어 더 많은 집단과 더 많은 사회 계층들이 생겨나고 각각의 계층들의 인권도 또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권들 중에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노동자인권,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등 많은 인권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 인권에 관해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인권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나에게도 내 스스로 무엇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런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문제가 ‘두발’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가 정한 ‘두발’에 관련된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즉, 이 말은 학생들은 자신의 두발 길이를 스스로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교칙을 어기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 때, 학교의 선생님들은 가차 없이 학생들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한다. 심지어는 직접 가위를 들어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머리를 기를 자유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하고 머리가 잘려나가게 되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관련된 사례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K 고등학교의 이 모 교사는 두발지도를 피해 학교 밖으로 도망가는 학생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시 학교로 끌고 왔다고 한다. 학교 주변에 있던 학생과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문이 일자, 시교육청은 학교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장학사들을 학교로 보내 특별장학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 검색포털 엠파스가 ‘두발단속,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자 778명 중 67%(523명)가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등의 두발단속은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반면 학교 내에서의 규칙일 뿐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은 33%(255명)로 나타났다고 한다. 위 두 사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학생들의 두발 규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침해라는 점이고,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역시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체벌’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우리는 뉴스에서 ‘학생 체벌’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한다. 이것은 ‘학생 체벌’을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문제로써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체벌이 심할 경우 학생이 사망할 수도 있고, 체벌로 인해 학생이 자살로써 목숨을 끊을 정도로 학생 체벌은 아주 심한 학생들의 인권 침해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많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관련된 사례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과잉 체벌해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인천 모 초등학교의 안 모 교사에 대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대법원 3부는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교사(29·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또한, 안 교사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고 또 같은 반 남학생을 100여대 때리고 반 학생들에게 "OO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교육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사회에서의 학생 체벌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맞아 시퍼런 멍이 든 사진이 실린 기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혀를 차고 또 분노한다. 학생들은 체벌로 인해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하

고 선생님들을 겁내기도 한다. 또 체벌에 대해 ‘단 한 대라도 인권이 무너지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위의 두 사례는 현재 학생 체벌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잔인한 지 잘 알려주고 있다. 만약 자신의 자녀들을 이런 선생님께 맡긴다면, 과연 마음이 편할까?

또 다른 청소년 인권 침해 피해의 예들이 있다. 우리에게 쉽게 알려져 있는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나이 제한으로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다. 특히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는 다른 사람들 보다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청소년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없고, 뽑혀진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으로 보아 청소년들은 선거에서도 인권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로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나온 기사를 들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생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은 무시당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선거에 반영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기호 0번 청소년 후보’가 되어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거리 유세를 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의견을 선거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촛불 집회’를 들 수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로 볼 수 있는 ‘촛불 집회’의 시발점은 바로 청소년들이라고 한다. 즉, ‘촛불 집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으로 부당한 권력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촛불 집

회에 관한 기사들을 볼 때, 기자들은 촛불 집회가 청소년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말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주적으로 일으킨 촛불 집회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말하면서 청소년들을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사실도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자유에 의해서 스스로 집회에 참여한 것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예로, 촛불집회 참가자 가운데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강제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불법 거리 시위를 한 혐의로 고등학생인 18살 최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 군이 이전 집회에서도 진행되는 등 불법 시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들 수 있다. 이렇듯 학생들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이라는 신분만을 가지고 더욱 부당하게 대우 받기도 한다.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이처럼 인권들을 많이 침해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청소년들의 피해를 그냥 지켜만 봐야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는 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가 여러 인권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그런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청소년인권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세워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기 전에 학교나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서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앞서 말했던 두발 자율화 문제에 대해서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가 모두 모여 서로 협의한 후에 두발 규정을 정하기도 했다.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에서 큰 의미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들 수 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교육감들이 뽑히면서 많은 새로운 교육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두발자유화, 야간자율학습자유화, 0교시폐지, 학생 처벌 폐지 등’ 주로 학생들을 위한 것들이 많다. 모든 걸 강제로 당해야 했던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의미다. 이 조례안이 발표되고 의회의 통과를 기다릴 동안, 전국의 학생들은 내심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례안은 여러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청소년 인권을 위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다.

세 번째로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국제워크숍’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기념행사는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주체로 열렸던 행사이다. 행사의 취지 배경은 이렇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체벌이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학교에서의 징계는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체벌을 금지한 적이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한국에서 체벌이 공식 허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고, 체벌이 어린이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학교 운영규칙을 개정해 체벌을 금지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상 필요한 제한적 체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체벌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워크숍행사에서 ‘그린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교육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번째로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청소년 인권 보호 단체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가 나서서 만든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서 만든 시민단체들까지 여러 단체들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

치고 있다. 제도화된 정부의 단체들은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 대통령특별회의 등이 있으며, 비정부 제도화된 시민단체의 청소년 조직으로는 청소년의회, 대한민국고등학교총학생회,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협청소년회의, 생활권수련시설중심의 청소년위원회 등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 인권에 대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과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단체들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단체들의 활동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 인권을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먼저 청소년 인권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들은 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어렵다고 혹은 귀찮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활동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 볼 수도 있고 또 혼자만의 활동이 아닌 단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을 종합하여 나아가서 국가에 국민청원의 방법 등으로 자신들의 뜻을 알릴 수도 있다.

앞의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도 침해받는 청소년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청소년 인권의 전망은 밝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머지않아 청소년들

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 받아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인간은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수원 화홍고등학교 2학년 안현담

“제가 당신에게 자유의 원리를 옹호하는 이 대단찮은 논문을 보내는 것은, 당신이 모범적인 미덕으로 자유의 원리를 수립하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당신의 자혜로운 소원대로 보편적인 것이 되고, 신세계가 구세계를 재생시키는 것을 보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미국의 자주적이고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였으며, 영국인들에게 공화국을 세울 것을 호소했던 토마스 페인이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듯이 어떤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소유권 또한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 토마스 페인을 통해 인간의 권리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져보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생각해 보았다.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해 준 이 사회의 법은 비정규직이란 노동력을 양산시켰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 년 동안 회사에 몸담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오늘부터 출근할 필요 없음’ 이란 짧은 문자를 통해 해고를 통지한다. 경제적 가치의 잣대로만 모든 것이 저울질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써졌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버려지는 노동에 인권이 숨을 쉴 곳

은 없다. 그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 즉 그동안 회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삶의 수단을 잃고 절망한다. 아우슈비치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의 말처럼 진흙탕 속에서 고되게 노동하며 평화를 알지 못하고 빵 반쪽을 위해 싸우고 예,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는 이가 인간일 수 없듯이,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한순간에 불필요한 잉여 물로 전락하는 이들도 인간일 수는 없다.

개발이란 목표아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했던 용산의 철거민들은 생존을 위해 망루에 올라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내려왔다. 그들과의 대화의 창은 닫고, 그들을 존엄한 인간이 아닌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던 사람들에게 지역 원주민을 모두 몰아낸 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싶다. 개발이란 가치 아래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기에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것이 아닐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한 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노숙자가 된다. 어느 정치인은 거리의 노숙자들은 환경을 생각해서 싹 치워버려야 한다고 했다. 인간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가치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는 기득권자들이 앞장서서 지켜주어야 이 사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인데,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와 같다면 이 사회에는 누구를 위한 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구걸을 한다. 땀 흘리는 육체적 노동을 통한 벌이의 대가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만들지만, 구걸을 통한 생존은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어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그들을 익명의 그늘에서 살게 만든다. 외국의 한 잡지는 노숙자들에게 거리에서 그 잡지 판매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구걸이 아닌, 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

면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사회의 노숙자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어 그들이 이 사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또 종종 삶의 벼랑 끝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에 나이 어린 자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부모는 자신이 그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생명권을 임의대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는 자식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고귀한 인권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으로 갓 시집을 온 베트남 여인이 한국인 남편에게 피살당하는 사건도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동남아에서 여인들을 돈으로 사오는 사람들에게 결혼 중개업소들은 한 술 더 떠서 여자가 구매자의 마음에 안 들면 그들에게 다른 여자로 바꿔준다고 말하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가난으로 인해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노동력을 팔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비인간적인 처우에 울분을 터뜨렸던 우리 역사가 지금 이 곳 대한민국에서 그들보다 더한 인간시장을 만들고 있다. 그 여인들 또한 대다수가 가난으로 인해 한국행을 선택했을 텐데, 그런 그녀들에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재의 역사는 그녀들이 가난한 나라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백만이 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희미한 의식은 그들에게 차별을 넘어 폭력에 가까운 시선들을 던지고 있고,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업주들도 생겨나게 하고 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인권 또한 너무나도 취약해서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공간이 이 사회 어느 한 자락에 터라도 잡으려고 하면, 단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그 지역 주민들의 세찬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쓰임새들은 그들을 일반인들과 구별하여 오히려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모든 시설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드는 것이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보다 깊은 사회적 배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법의 집행과 그 법을 제정하는 행위 속에도 얼마나 깊은 인권의식을 담아냈는지 생각해 보았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자들의 죄에 대한 판결은 그 죄질이 힘없는 자들이 지은 것보다 훨씬 나쁜데도 법은 늘 그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그리고 단지 이 사회의 약 4천명만이 그것도 이 사회의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인 그 4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중국적 허용 법안이 최근에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이 사회에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아닌 단지 생존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인간다움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 제정보다 이중국적법 허용이 우선순위에 올랐어야 했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힘이 곧 정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한 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힘 있는 나라가 억지스러운 명분을 내세워 일으킨 전쟁은 그 전쟁이 지닌 광기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참상을 빚어냈는데도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기득권층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

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투쟁은 때론 목숨을 요구했고, 투쟁에 가담했던 이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피를 뿌린 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에서도 훼손 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이루는 근간은 바로 자유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그 자유를 통해 인간다워질 수 있고, 그 자유를 통해 고양된 영혼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질적 가치를 숭배하는 자본주의의 척박함은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실존보다 우선시하게 만들어, 무조건적인 사랑이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족에서조차 그 사랑을 찾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 흉물스런 벌레로 변한 뒤 가족의 냉대 속에 죽음을 맞이한 카프카의 <변신> 속에 등장하는 그레고르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가치로만 환산되는 경제적 함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결코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는 어떤 함수 값을 지녀야 하는 것일까.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치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어떠한 빛도 발할 수 없다. 그러기에 경제의 발전의 속도 또한 인권 앞에서는 그 어떤 명분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발전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가버릴 수 있는 사회는 지극히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그들이 지닌 권리를 국가에 위임했다. 그러나 그 국가가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비민주적인 야만성을 드러낸다면 피해를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에서 빅브라더가 생겨나 인권을 종이처럼 구겨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차별의 벽은 점차 허물어져 상대적으로 이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은 희망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말했던 어느 경제인의 말처럼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그 어떤 물질적 가치가 아닌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는 자세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그러면 아직은 스스로 땅을 딛고 지탱하지 못하는 ‘인권’이란 나무는 든든한 지지 삼각대를 얻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보다 단단한 뿌리를 이 사회에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 사랑의 특권, 인권

인천문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권예은

밤 10시, 아빠와 함께 퇴근하는 엄마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저녁 준비에 정신없다. 하지만 싱크대 안은 수북이 쌓인 빈 그릇을 보고 투덜대며 엄마를 도와드린다. 곁에서 보다 못한 나는 아빠를 향해

“아빠, 설거지라도 좀.....”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해!!”

“친구아빠들은 다 해준다는데.”

“전업아빠가 보지?”

“아빠, 엄마 정말 사랑해!! 투명스럽게 쏘아 붓 친다.

학기말고사 준비한다고 부탁 좀 드려 보았지만 아빠는 끝내 도와주시지 않았다.

인권에 대해 크게 고민하거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 진로를 상담 하며 여성이 사회로 진출 할 때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게 피부에 와 닿는다.

인권은 여성과 남성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 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의 본성의 권리다. 따라서 여성도 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하여 우리사회의 시선과 개선 할 문제점은 뭘지 생각해 본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 한명숙 국무총리도 여성인데 네 꿈은 뭐냐?”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의사는 돈이 많이 드는데 여자가....”

병마와 싸우는 할아버지께 힘과 용기. 근심을 덜어 드리고 싶었지만 속으론 너무나 섭섭했다. 할아버지는 지금, 사랑하는 우리들 곁을 떠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먼 하늘나라에 가셨고 텅 빈 그 자리엔 ‘후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아빠는 어릴 적부터 가정교육을 엄하게 받으셨다. 특히 여자들이 해 왔던 일들은 전혀 도와주시지 않으신다.

가끔 아빠한테 물어 본다.

“아빠, 조카 양자는?”

“괜찮아요. 아빤 우리공주님들만 있어도.....”

하시며 웃으신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다.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며 함께 출퇴근 한지가 20년이 되셨다.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아빠는 언제나 TV 리모컨만 손에 들고 정신없이 돌린다. 마치 하숙집에서 밥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래서 가끔 아빠가 알밋고 서운하다. 친구아빠들은 세탁기 돌리고 재활용품도 버리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신 다는데 아빠는 소용없었다.

여름휴가 때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 때문에 두 달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집안일을 아빠가 도맡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음식이라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빠!

빨래하고 반찬하고 정신없으셨다.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그리고 엄마의 소중함을 우리가족 모두는 실감했지만 특히 아빠가 힘들어 하셨다. 속

웃이 어디 있는지 와이셔츠는 꼬질꼬질 흠 애비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빠의 지극정성으로 엄마가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셨는지도 모른다.

퇴원하던 날부터 엄마아빠는 원래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허참, 창피하게 왜 자꾸 이런 것 시켜!”

“왜요? 남의 눈이 뭐 그리 대수라고.” 엄마는 전과 다르게 쏘아 붓이 신다. 아빠는 마지못해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나 선다.

“여보. 고마워. 아무도 안 보게 얼른 버리고 들어오세요. 네~”

코맹맹이 소리를 발사한다. 곁에서 보면 닭 살처럼 보이지만 결혼해 부부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

장손인 아빠가 제사를 모신다. 그래서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우리 집은 음식준비로 바쁘다. 그중에도 엄마와 딸인 우리가 바쁘다. 설 1주일 전부터 배낭을 메고 재래시장을 다니며 정성으로 과일과 어류를 준비하고 명절 날 새벽엔 배추 전, 녹두 전 등 맛있는 전들과 여러 제사음식을 준비한다. 하지만 고생한 우리는 뒷전에서 절만 할 뿐 술 한 잔을 못 올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조카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조상님께 잔을 올린다.

서글펐다.

“아빠, 제사준비는 우리가 다 했는데 술잔 올리면 안 돼요? 엄마아빠 제사도 딸인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아빠께서는 망설임 없이 “그래. 고생했다. 한 잔 씩 올려보렴.”

올 설날부터 제사예법을 겨우 가르쳐 주셨다. 여자란 이유 때문일까? 그럼 여자의 인권이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엄마는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즐겨 부르셨나보다.

‘참을 수 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흥얼흥얼 때로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때로는 눈가에 잔잔한 이슬이....

여성들은 왜 이처럼 살아야 할까?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주장한다.

여성은 스스로 자기능력개발에 힘써야 한다. 당당한 자신감과 책임지는 자세. 남성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여성을 인격체로 봐야한다. 여성은 외모나 성적인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시대, 신산업시대에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법과 관습에 의한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에서 여성이 자유로워야한다. 미혼모 시설과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자는 이유로 묻어 둔 재능과 능력을 펼치기 위해 정치참여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고 여성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문화 활동이 필요하다. 여성의 인권이 건강하고 확립되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인류미래는 바로 여성이 잉태한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통합과 화합이다. 전통유교사상은 여성을 그저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양육으로 현모양처라는 명분으로 가정이란 울타리에 가두어버렸다. 이제는 남녀가 모든 일에 협력하고 화합하는 시대로 발전하였다. 지구촌의 반은 남성이고 그 반은 여성이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나 아름다운 삶과 행복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

일방적인 주장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남성은 그동안 누려온 특권을 빼앗겼다고 억울해 할 것 같다. 하지만 빼그덕 소리 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인권은 사람 사는 향기로운 세상을 만든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이 유난히 요즘 들어 마음에 와 닿는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다.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잘 나고 못 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크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에는 성형수술로 학교는 병원처럼 환자들로 야단법석이다. 예뻐야 취직도..... 나는 곁으론 태연한 척 하지만 은근히 걱정된다. 우리사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그 사회 속에 나도 여성이지만 ‘여자는 예쁘면 모든 게 용서 된다.’는 말도 사실

은 기분 나쁘고 인권침해다.

인권이란,

사람의 향기며

사람으로서의 특권이며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에너지원이며

우리사회에서 비타민 같은 동반자적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태어 날 적부터 부여 받은 유산과도 같다.

이처럼 소중한 인권에 대하여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신장과 법적 제도적 장치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큰 변화를 느낀다.

인권!

진정한 선진국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경제 10위 국가에 걸 맞는 인권 선진국가로서 살맛나는 대한민국의 그 날을.....

## 인권은 늙지 않는다

광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최지영

“고령화 사회”란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더불어 항상 존재하는 인권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크고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노인의 인권은 어떨까? 자칫,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 육체적·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인권은 잘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보장해 줄 인권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역에서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증설이다. 그렇다면 그 곳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게 노인들의 복지와 요양이 잘 제공되고 있을까? 즉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가 노인들에게 잘 보장되어지고 있을까? 더 쉽게 말해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은 아들, 딸 그리고 손자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편하고 행복한 노후를 그곳에서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얼마 전 다녀온 노인 복지센터에서의 봉사활동에서 느낀 실망감, 그 일을 계기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된 요양병원 내 노인인권침해 사례 그리고 정부적 차원 뿐 아닌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해야 할 노력 등을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나는 얼마 전에 봉사활동을 하기위해서 가까운 요양병원에 갔었다.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화투도 치시고,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 손주들 이야기도 해 주시는, 그리고 간혹 욕쟁이 할머니도 있을지 모른다면 들뜬 기분으로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막상 그 곳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문이 굳게 잠겨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마치 정신병자들이 갇혀있는 공간처럼 보였다. 문을 통과해서 위층으로 올라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 할머니들 침대를 닦는 일, 휠체어를 닦는 일 등등. 하지만 우리가 청소하는 내내 할머니들은 우리의 인사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걸까. 계속 청소를 하다 보니 날이 더워 땀이 났다. 그때 문득 병실을 들여다보니 창문이 콕콕 잠긴 병실은 후덥지근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들은 우리처럼 더우셨는지 연신 부채질을 하고 계셨다. 잠깐 사무실에 물어 볼 게 있어서 사무실에 갔는데, 마치 더운 날 은행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었다. 순간 할머니들 방의 환경을 생각하니 눈살이 찌푸려졌다. 왜 자기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아래서 요양하고 있는걸까? 청소를 끝내고 치매가 있으신 한 할머니와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봉사 활동을 마쳤다. 그 할머니께서는 할머니가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와 비슷해서 재밌게 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내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점이 있었다. 중간에 병원 직원 분께서 오셔서 할머니의 옛날이야기 중 살짝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를 반말로 툭 내 뱉는 것이었다. 친근함을 넘어서서 도가 지나친 것 같았다. 할머니는 그 뒤로 입을 다무셨고, 우리가 되레 무안해져서 그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서 작성을 하던 중 직원 분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며 빵과 물을 주셨다. 점심도 못 먹고 일해서 배고프던 우리는 감사하게 먹으려던 순간 “이 컵은 나쁜 컵 아니니깐 괜찮아요”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컵은 할머니들이 쓰는 거

아니고 손님용이에요. 깨끗하니까 걱정말고 먹어요”라는 말을 하셨다. 그럼 할머니들이 쓰는 컵은 나쁜 컵이라는 말 아닌가. 거기계신 할머니들은 전염병에 걸리시거나 한 게 아니라 단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지셨을 뿐 우리와 다를 게 대체 뭐 길래 할머니들 컵은 더럽고 나쁜 컵이 되는 걸까. 누구보다 할머니들을 가족처럼 보살피려 드려야 할 분들이 할머니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살피고 있다니 거기계신 할머니들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굳게 잠긴 문, 텅디 텅디 더웠던 병실과는 대조적으로 에어컨이 켜져 시원했던 사무실, 어린 우리들 앞에서 할머니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직원 분의 막말, 나쁜 컵과 깨끗한 컵. 머릿속 깊은 곳에 노인에 대한 엄청난 편견이 박혀있음을 짐작케 했다. 생각 해 보면 우리는 요새 걸핏하면 인권침해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하다못해 연예인들은 사생활침해다 등등 자신들에 대한 권리는 엄청나게 챙겨대면서, 막상 노인들의 인권은 하루에도 수 십 번 침해하고 무시해 온 것이다. 노인들에 대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무시가 아닐까?

나는 집에 와서 엄마와 할머니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자 엄마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생각해 보니 엄마는 몇 년 전 겨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쪽 일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은 실망을 했었다고 한다. 엄마가 다녀왔던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기 위해, 환자 유치로 돈을 벌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노인을 대하는 것은 모두 형식적이라면서 너무 안쓰러웠다고 하셨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노인들을 퇴원시킬 경우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이다. 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았다.

2002년부터 정부가 요양병원 설치비용을 지원하면서 요양병원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그런데 요양병원들은 노인 환자수를 늘리기 위하여 의사와 면

담 없이 간호사의 결정으로 환자를 받기도 하고, 간호사에게 환자를 많이 입원시키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 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요양 병원이 운영되었다면 과연 노인의 인권이 존재하긴 했을까? 요양을 시켜드려야 할 대상이 아닌, 돈벌이로만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노인 시설에서의 인권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요양시설 입소 시 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인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등의 인권 사례들이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요양시설 106개소의 노인과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많은 인권침해의 사례가 있었다. 몇 가지 나열 하면 경로연금, 교통비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점, 노인의 개인물건을 시설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점,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점, 시설의 종교를 강요당하는 점,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의 신체를 가리지 않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점, 그리고 직원들의 반말사용 등이 있었다. 내가 다녀온 복지센터를 생각해 보았다. 처음 들어 갈 때 보았던 굳게 닫힌 문은 외부와의 접근 차단을 말해주고 있었고, 모든 할머니들이 요양병원에서 나눠준 노란색의 종교종이를 들고 계셨던 것과, 친근함을 넘어서서 도가 지나친 직원들의 반말과 막말 등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 요양병원의 환자인 노인이 아니라 만약 병원의 원장 혹은 정치인 등에게 이런 대우를 한다면 어떨까? 아마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인권침해라고 외치며 변호사를 찾아갈 것이다.

복지시설, 요양병원에서도 지켜지지 못하는 노인들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지켜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다. <서울 시립 동대문 노인 종합 복지관 부설 한국노인인권센터>가 서울 지역 60세 이상의 노인 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60세 이상의 노인 절반가량이 노인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노인을 공경하

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답했다. 또 노인인권침해의 해결은 정부나 사회가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매우 높았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 늘어나게 될 노인들과 그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제도적 차원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노인이 가족, 친지가 없을 경우라도,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자신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 질 경우 노인을 대신할 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공적지원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노인의 잔존능력이 소진될 때 까지는 자기결정 하에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인의 인권 뿐 아닌 여러 가지 권리 옹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우리보다 일찍 찾아온 일본의 경우 성년후견제도가 일찍이 잘 자리 잡아 그 빛을 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사회와 그에 따른 노인들의 인권문제에 관해 준비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제도가 성공적인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제도적 차원이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문화가 될 때 까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생각 바꾸기’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처럼 노인인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바로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편견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은 노인을 사회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도 노인문제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30~40년 전의 그들은 우리 사회를 돌아 가게 하는 중요한 힘이었고, 그 이전에는 지금의 우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던 우리나라의 미래였다. 다만 지금의 이 사회를 만들어 오느라 많은 힘을 다 써버려서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온 것뿐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우리에게 준 이 많은 것들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그들에게 누릴 수 있

도록 해 주어야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 내가 먼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며, 노인을 공경하려 하는 마음과 작은 실천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노인인권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은 절대 소외되고 무시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의 인권은 금덩어리이고, 늙어버린 노인의 인권은 굵게 주름진 돌덩어리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인권은 절대 늙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 내 생각을 바꾸면 우리 10대 들의 생각이 바뀔 것 이고, 우리가 점점 자라서 이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면 이 사회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사회의 생각이 바뀌면 사회의 제도도 바뀌고 그것이 현실화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멋지고 편안한 삶을 누릴 노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우리가 누릴 삶, 우리에게 보장 될 인권은 훨씬 멋질 것이다. 봉사활동으로 시작해서 이 글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걸 마음으로 느꼈다.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오다가, 이제는 그 뒤에 서서 묵묵히 소외되어가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재밌는 삶이 보장되어서 굵게 패인 주름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인간은 인간답게 쳐다봐주세요

충남여자고등학교 김한슬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장애인도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을 해야 될 정도의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아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아빠께 들은 이야기는 병원을 믿고 있던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빨리 나아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싶어!’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웬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께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 시기가 저에게 큰 슬럼프이자, 마음의 병인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은 매정한 사람들이야.’ 라는 편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럴까?’ 그건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제일 신경 쓰인 것은 사람들이 내 걸음걸이에 대해서 쳐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동네에 계시는 어른들의 수근거림, 반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이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비장애인들과 같아서 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데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시선 받게 싫었습니다.

전 기록이 남는다는 말에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장애인 취급을 하면서 기피하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딱히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같이 있기만 해도 피해 받는 듯이 싫어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 마다 놀리는 정도가 심해져서 친구를 사귄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소외감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심지어 부모님께 심한 투정을 부리며 힘들게 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창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지하철 역이었습니다. 난 장애 인증이 없어서 관찮았지만 사촌언니는 장애인 인증으로 표를 구매하고 개찰구를 지나가는데 다른 표와 다른 소리가 나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땐 ‘아 아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예전보다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육대화도 생기고 장애인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 할 정도로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깐 말입니다. 크게 보면 잘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쳐다보지 않고 사고방식으로 오해를 먼저 해서 표정을 찡그려서 장애인에게 상처 주게 된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에서 비장애인인 형 부부가 장애인 동생을 노예처럼 부리고 국가에서 지급 해 주는 돈을 보호자라는 이유로 돈을 가로 채서 동생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데로 사용 하였다는 내용을 시청 하였습니다. 그 때 생각했던 것은 ‘국가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인 하고 관리 할 수 있게 한다면 장애인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든지 노약자든지 어린이든지, 최소한의 인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장래희망은 심리치료사입니다. 심리치료사 중에서도 장애인, 노인 심

리치료사입니다. 나와 같이 소외감과 심각한 놀림과 차별로 인해 우울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장애인에겐 인간존중과 따뜻한 시선을 준다면 최소한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노력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장애인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거나 괴물 취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보다 생각이 깊고 끼가 많고 밝은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대해주세요.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상처 받은 것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도 시선이 많이 신경 쓰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장애인도 무시 하지 말고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말투도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기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시설이 부족해서 몇 배 더 비싼 금액을 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늘어나면 더불어 주변 시설, 공공시설 등이 더욱 편리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버스 엘리베이터, 안전하게 고쳐진 공공 운동장 등 비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 피해만 준다는 단점만 보시지 마시고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은 교육에도, 장소 출입하는데도, 운동을 하는데도 핸디캡이 적용되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피해 받는 점 보단 적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귀가 안 들린다는 이유로 취직이 안 되어서 대학에서 과를 변경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어서 과를 변경했다면 꿈이 바뀌어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방황 했을 것인데 긍정적이게 대처, 생각해서 사회복지과를 가서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요. 봉사 하는 곳에 가서도 걸음걸이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도우러 왔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모여서 수근 대며 왜 왔냐고 하

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남들이 하는 일을 성의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당신들과 같은 인간이고 당신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고, 당신들처럼 남을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보다 더 빛날 수 있어요.’ 라고 생각 하면서 봉사를 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장애인 보호단체, 인권위원회, 소수 장애인 보호단체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도 인간이고 인간답게 대우 받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도와주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더 강조 하는 것은 장애인, 노인 등의 소수 약자들도 인간이고 그만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 잔인한 배려

경북 고등학교 2학년 최현호

튀겨나듯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문이 채 다 열리기도 전에 밖으로 뛰쳐 나왔다. 계단을 한꺼번에 3개씩 건너뛰고 숨이 가쁠 정도로 달렸으나 그 눈동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난 보고야 말았다. 그의 고달픈 눈동자에 비친 위선적인 내 모습을…….

직감적으로 눈을 감고 머리를 낮췄다. 그저 내가 학생임을 알아차리고 넘어가기 만을 바랬다. 하지만 그는 내 무릎위에 종이 한 장을 남기며 하나 남은 다리를 이끌고 지나갔다. 속으로 4초를 세고 몰래 뜯 눈으로 그가 놓은 종이를 읽어 내려갔다. 꽤 흔한 플룻에 별 감회를 느끼지는 못했다. 그보다는 부모님 몰래 살 취미용 명품 필기구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다. 옆을 보니 그가 5명 중 1명꼴로 종지와 함께 지폐를 받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그래도 죄책감 남아있는지 그가 다가올수록 조금씩 초조해졌다. 불편한 기다림 끝에 그가 도착했다. 그러나 그가 종이를 집으려하자, 내 불안정한 무릎위에 있던 종이가 땅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종이가 미끄러짐과 동시에 몸을 움직였고 땅에 닿기 직전에 붙잡았다. 무의식적으로, 그가 다리가 하나 없는데다 척추 장애인여서 주울 수 없을 것이란 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내가 잠자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반응

하여 움직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순간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몸이 떨려왔다. 일으켜 지는 몸은 건잡을 수 없이 무거워져 갔지만 끝까지 그를 향해 올라갔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감각 속에서 나는 소아마비로 뒤틀린 얼굴에 외로이 박힌 두 눈과 마주쳤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그저 이유 없이 밀려드는 초조함에 질려갈 뿐이었다. 그러던 중 평소 하교 방향이 다른 친구 한명이 나와 같은 방향으로 하교하는 것을 목격하고 어딜 가는지를 물었다. 주마다 봉사활동에 간다는 친구의 답변에 입시관련 스펙을 쌓고 있다는 색안경을 낀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과는 관련 없이 하고 싶어서 한다는 그 친구의 답변에 충격이 적지 않았다. 중학교 때부터 ‘봉사는 어디까지나 학교에 보이기 위한 것’이란 인식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약간의 호기심과 지난 일의 죄책감에 이끌려 자원 활동 센터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활동 내용은 도시락 대여섯 개를 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달해 주는 일이었다. 분명 납득이 가는 활동이었다. 다만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우리 동네를 선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일단 나는 그곳에서 18년을 산 토박이지만 그 동안 우리 동네가 이런 활동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느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의구심을 뒤로하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비오는 여름 길을 나섰다.

옆길에 있는 반 지하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창문하나 없는 계단 아랫집의 불구 아저씨, 악취 나는 뒷골목의 허리 불편하신 할머니, 비가 세고 있는 수십 년 된 빌라의 편찮으신 할머니, 산중턱의 3평짜리 집에 함께 사시는 두 노인 분들…….

‘도대체 이곳은 어디지? 이곳이 내가 그동안 살았던 동네가 맞긴 한 거야?’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나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말이야?’

‘제발 저를 보고 그렇게 따뜻하게 웃지 말아 주세요. 전 이곳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당신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놈이라고요. 당신들에게 감사를 받을 자격은 눈곱만치도 없는 놈이란 말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말은 많았지만 단 한마디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한 걸 같이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그들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었다. 살짝 흘리는 시선 속에 빚친 그들의 미소는 도시락에 대한 감사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감사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그것은 그들의 소외된 삶속에 떨어진 최소한의 관심에 대한 감사의 미소였다.

인구는 늘어나도 인간은 고립되고 있다. 물질은 풍요로워져도 인심은 삭막해 지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무관심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되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관심’이란 얼마나 ‘잔인한 배려’란 말인가? 어린 시절, 불우한 이웃을 보고 호주머니 속 500원짜리 동전 하나 꺼낼 만큼의 관심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가끔 잇을 만하면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숨진 지 몇 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토록 무관심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되돌아보니 이미 나 역시 공범인 것이다. 그렇다.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대한민국에서 물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인간으로써의 기본적 권리는 대부분 보장되는 사회가 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어

도, 그리고 추워서 죽는 사람 또한 없어도,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 물질의 부족 보다 관심의 부족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 인권침해의 새로운 인식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본다. 우리들은 보통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인권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인해 인간답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무관심 역시 엄연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삼 대한민국의 헌법 10조항의 행복추구권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

## 2010년도 인권에세이 수상작품집

---

2010년 12월 인쇄

2010년 12월 발행

---

발행인 : 현병철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10층  
(을지로 1가 16번지)

전화 : (02)2125-9737

팩스 : (02)2125-9878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사이버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

인쇄처 : 리드릭(02-2269-1919)

---

ISBN : 978-89-6114-221-2 93330